



어떤 어려움과 공포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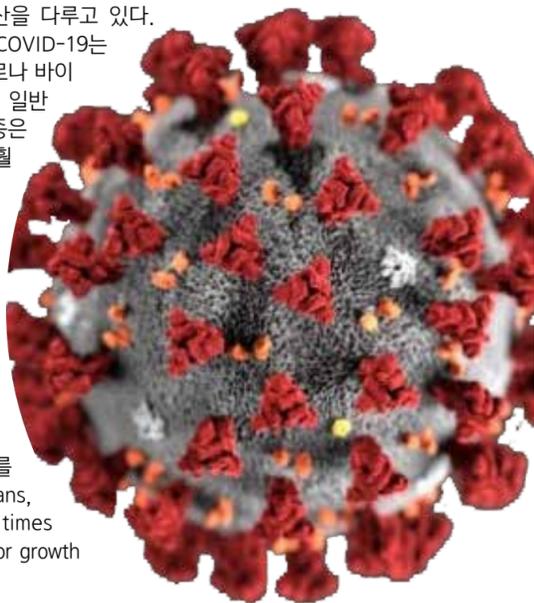
# 바이러스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 CT, 에드 스테처의 교회사 통해 전염병에도 굴복 않고 복음 전한 크리스천들 소개

현재 모든 뉴스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산을 다루고 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바이러스 COVID-19는 국제 여행에서 세계 시장에 이르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일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변종은 전 세계적으로 82,000건, 2월 말까지 2,800명이 사망하면서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2020년 2월 25일 현재, 질병 통제센터(CDC)는 바이러스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37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보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에 이 발병이 "국제 문제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언했다. WHO와 세계관광기구(UNWTO)는 여행 또는 무역 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올 여름 도쿄올림픽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에드 스테처(Ed Stetzer, 휘튼대학학장, 동 대학 빌리그래함 전도센터장)는 이와 같은 불안과 무기력한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역사적 실례들을 소개하면서 웅변한다(Coronavirus, Christians, and a Christ-Centered Response: How we respond in times when we feel powerless may offer a greater opportunity for growth for us and to witness to others).



### 어둠 속의 빛

나는 건강관리 전문가가 아니며 TV를 통해 방송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전달자이기에, 이와 같은 건강문제를 포함해 모든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을 알고 있다. 바로 그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묘사돼 있으며, 희망을 어디에 뒹야하는지 상기시켜준다.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구하거나 육체적인 건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재정적 풍요나 현재 건강 상태가 우리 정체성의 근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시편 20편 7절은 우리에게

### 이렇게 상기시켜준다:

"어떤 사람들은 병자와 말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합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재정 포트폴리오와 건강 상태를 신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이러스의 발발과 확산에 놀라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두려움에 무관심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바위, 빛, 구원이다(시

27:1). 지금은 반복되는 뉴스 대신 오히려 시편을 읽는 것이 더 낫다.

미국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권력과 안전에 익숙하다. 갑자기 힘이 없고 취약하다고 느끼는 이 시기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할 수 순간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치도록 하셨다(마5:14-16).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빛날 때가 될 것이다!

### 역사의 반복

교회는 교회가 빛으로 비추기 위해 고난의 어둠 속

으로 들어서는 실례들로 가득하다. 아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나중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251년경에, 역병이 로마제국을 휩쓸고 지나간 사례를 살펴 보았다. 260년 부활절 편지에서 디오니시우스(Dionysius)는 전염병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로마를 지키며 열정을 갖고 사역하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신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4면으로 계속)



## 브리검영대학 동성애금지 교칙 삭제

### WP, 몰몬교대학 결정 통해 동성애 문화코드 확산 보도

몰몬교 대학인 브리검 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의 학생윤리 수칙(Honor Code)에서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삭제된 지난 주, 캠퍼스 내 LGBTQ 학생들은 브리검 영의 동성 앞으로 물러가 축하를 나눴다. 그러나 얼마 후 대학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당국의 입장에 촉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는 했지만 윤리수칙의 원칙은 그대로이며, 담당부서에 회부되는 사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것"이라는 트윗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브리검 영 대학의 학생들은 몰몬교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적 느낌을 표현하는 모든 친밀한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윤리수칙의 규정 때문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연애관계를 숨겨야 했다.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적인 몰몬교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동성애 문화코드를 사설을 통해 짚어준다(BYU removed its longtime ban on 'homosexual behavior,' but many students still have questions).

지난 4월 몰몬교는 동성결혼이 여전히 "심각한 종교적 죄악"이지만 동성 배우자를 둔 이들을 "배교자"로 여기지는 않으며, 동성커플의 자녀들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브리검 영 대학의 이번 조치는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진화함

에 따라 대학 역시 학생 징계에 있어 윤신의 폭을 두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보수적인 종교적 전통을 지닌 학교들이 학생 지도에 있어 현실과 법률의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3면으로 계속)



시원 최해근 목사

3면



개혁의 땀방울-조진모 목사

7면



세기연 초대석-진유철 목사

16면

(4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i.edu | (213) 669-0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싱글맘, 싱글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gbok.org / cjc@lgbok.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에서 싱글을 초대합니다

## 신앙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님의 영광교회는 싱글 남녀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위해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를 설립하여 이제 제 2기 만남의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초 교파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이의 제한 없이 모든 싱글 남녀들의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해 받습니다.남여의 신청 비율이 맞을 때 연령별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 제2기 만남의 장에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 일시: **예정되었던 3월 모임을 코로나19로 인해 5월, 6월로 연기합니다. 등록은 계속 받습니다.**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Hope Center
- 참가비: \$100(1기 수료자:\$50)
- 보내실 서류: 1.참가신청서  
2.교회주보

\*교회홈페이지 gcjc.org에 들어오셔서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수있습니다. 보내실곳: gloriesingles@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장을 하시고 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문의: 회장 이병만 장로 678-538-7777  
디렉터 레슬리조 권사 213-700-6541  
주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발행인 칼럼

주기철의 잔(蠶), 송명희의 잔(蠶) 그리고 나의 잔(蠶)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걷는 사십일이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사십일도 아니요...

목사님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 바른 예배에 목숨을 거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오늘의 시대에 부끄러움과 함께 큰 울림을 주는 옥중묵상이다.

그렇다. "적절히"와 "먼 훗날"은 마귀의 단어이다. 우리가 "적절히" 할 때 마귀는 "매섭게"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먼 훗날"로 미룰 때 마귀는 "지금" 설칠 것이다.

"하지만" 목사님의 옥중묵상은 하지만으로 이어진다.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송명희씨는 이렇게 애잔한 글을 썼다. "주님의 손잔을 맞보지 않으면 주님의 손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기철 목사님은 직접 뽑지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 자신의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던 자리에서 송명희 시인은 직접 된 적이 있다. 보았던 야니든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잔"과 송명희 시인의 "주님의 손잔"은 편함과 달콤함의 자리에 안주하려던 나를 흔들며 세운다.

코로나19, 전 인류문제로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

Theatlantic, 의학전문 기사가 제시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현황과 향후대책 소개

현재 세계는 유례없는 속도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비하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졌으며, 중국의 과학자들은 몇 주 만에 유전자 분석해 그 결과를 다른 과학자들에게 알렸다.

따라서 '아틀란틱'은 백신개발이 짧아도 1-2년 소요되기에 당신도 감염될 수 있다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치료책이나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You're Likely to Get the Coronavirus: Most cases are not life-threatening, which is also what makes the virus a historic challenge to contain).

지난 한 달 사이 이노비오(Inovio)라는 작은 제약회사의 주가는 두 배 이상 올랐다. 1월 중순,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었지만 여러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것은 충분히 희망찬 시작이지만 이를 가지고 백신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은 수술 칼을 간 다음 새로운 수술법

러스 유전자 파편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곧바로 주입할 수 있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백신 개발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들도 제시

그리고 나머지 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이 출시되는 데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중국 우한에서 격리 수용,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확진 환자들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위기가 계속 될 경우, 만약 국경이 폐쇄되고 공급망이 끊어진다면 단 순히 물류의 입장에서 생산과 유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포시 또한, 처음 보였던 낙관적 예측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그는 백신개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모든 기초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곧 임상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백신의 양도 상당히 많으며, 또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시험마다 꼼꼼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신의 제조는 지금까지 거대 제약회사들의 일이었다. 지난주 아스펜 연구소에서 포시는 이들 거대 제약회사 중 어떤 곳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한가닥 RNA로 변이 쉬워 매년 백신개발해야 할지도 장기간 지속 전염병 대비는 봉쇄가 아닌 오픈이 현실적 대응책

을 발명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백신을 만드는 것은 과학보다도 일종의 예술영역에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면역시스템이 해당 바이러스를 기억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 병을 유발하는 급성 염증반응까지는 일으키지 않는, 그런 유전자 시퀀스를 찾아야 한다.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실과 동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백신이 발견되자마자 그 실험실에서 수십억 개의 바이

됐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백신의 개발을 이끌고 자금을 대는 2017년 노르웨이에서 출범한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다. 여기에는 노르웨이와 인도정부, 웰컴재단, 그리고 빌&벨린다게이트 재단이 포함돼 있다.

CEPI의 CEO 리처드 해튼은 포시 소장이 제시한 타임라인과 비슷하게 COVID-19의 백신이 4월이면 안전성 검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여름이 끝날 때쯤 그 백신이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면 놀라운 속도"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또한 전례 없이 대담한 계획이기도 하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 정도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를 제안하는 것조차 상당한 희망을 포함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이상적인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더라도 제조와 유통의 문제가 남는다. "실험실의 방법으로 수백만, 혹은 수십억 명에게 주사할 수 있는 양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

의 백신을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백신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사 그들이 백신 개발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사람들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그 제품을 쓰지 않게 되는 등의 큰 위험이 따른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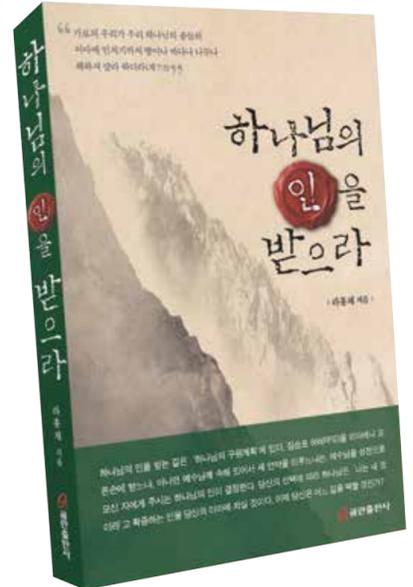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사: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브리검영대학 동성애금지 교칙 삭제

(1면에서 계속)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상의 “성에 따른” 일터에서의 차별금지가 성적 지향까지 포함하는 것인가를 검토함에 따라, 법이 종교적 교육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터에서의 차별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교육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검영 대학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당국이 윤리수칙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며, 담당부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LGBTQ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브리검영 대학의 윤리수칙은 지난 4월 담당부서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열리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해당 계정을 통해 학생들은 윤리수칙 담당부서가 학생들에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가혹한 징계를

나마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안도를 표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당국의 모호한 발표에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도 봉사활동에서 정학에 이르는 징계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양성애자로 규정 한 한 졸업생은 “윤리수칙도 일종의 계약인데, 기존

역시 즉각 개선했다.

수칙 개정 이후 당국에 직접 문의한 학생들은 LGBTQ 학생들에게 금지되는 연애행위는 결혼할 목적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허용하는 교회의 순결원칙을 어기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한 학생은 학칙을 “이성애자 학생이 똑같은 행위로

## 종교적 가르침과 현실의 법 사이 조치 윤리수칙 원칙은 고수... ‘케이스 따라’

내리고, 학생들끼리 위반사항을 고자질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캠퍼스의 LGBTQ 학생들은 딱 붙어 앉아 영화를 보는 정도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위험에서 조금이

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학생과 동문들은 “BYU를 구하라(SaveBYU)”는 제목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 했다. 똑같은 이름에 무지개 깃발을 붙인 맞불 계정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동성애자 학생도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해석에 대해 당국은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만을 남겼다.

### 코로나19, 전 인문제로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

(2면에서 계속)

백신의 개발은 매우 어렵고, 큰 비용이 들며, 위험 또한 높았기 때문에 1980년대 제약회사들이 백신의 유해성 주장과 함께 법적소송을 치르게 되자 많은 회사가 백신개발을 포기했다. 당시 미국정부는 제약회사들의 백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백신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정부가 직접 보상해줄기로 약속했으며,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회사들은 만성질환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의 개발을 선호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개발에는 마치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한 가닥의 RNA로 이뤄져 있어 쉽게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폴리티코’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

하기 위해 백악관이 의회에 1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CDC와 NIH, 그리고 해외 원조자금을 크게 줄인 새로운 예산안과 같은 달에 그 자금은 시행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장기적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백신,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다른 중요한 도구들의 개발에 설사 그 수요가 크지 않더라도 수십 년 동안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수요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CEPI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또한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들이 공정한 분배와 가격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CEPI는

그 비판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정했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혁신 및 접근성 고문인 매뉴얼 마틴은 지난주 자신들이 CEPI를 지지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CEPI는 분명 바람직한 모델이며, 우리는 이들이 새로운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은 또한 “CEPI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는 그저 인도주의적 이상 때문만이 아니며, 더욱 효율적인 실험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백신과 다른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것은 그 질병이 널리 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2009년 H1N1이 유행할 당시 멕시코는 가장 큰 피해를 보았지만, 호주에서는 그리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자국의 제약회사가 호주정부의 주문량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백신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세

계 각국이 봉쇄와 자국중심의 정책을 택할수록 백신과 마스크, 음식과 소비재 등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위험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지금 이탈리아, 이란, 한국은 COVID-19가 가장 빠르게 퍼지는 나라다. 중국이 행한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봉쇄정책의 의심스러운 효과와 본질적인 폐해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는 임국금지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적당한 격리조치는 필요하지만 여행을 금지하고 도시를 봉쇄하며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장기간 지속할 전염병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이 모든 시도는 그 자체로 적잖은 비용을 유발한다. 유행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경을 닫을 것이 아니라 열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딘가는 COVID-19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이번 바이러스는 전 인류의 문제다.

## 시론

### 코로나바이러스가 보여준 또 다른 면



최해근 목사 (동고베리교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았는데 사태가 만만치 않게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증가하는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이어 이란과 이탈리아가 재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는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지만 이 전염병의 지금까지 특성으로 보건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현저하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은 코로나바

이러스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국가의 지도자라도 자국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국민들이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일 전염병이 들어온다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이런 표준적인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선이 있음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느끼게 됩니다.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자리를 확보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나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과 자신이 속한 당(黨)이나 집권집단의 권익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국민보다 자신이 속한 당과 집단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가능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부분들은 덮으려 하는 지도자들의 본능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상태와 위험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은 이란의 총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권당은 의석수를 생각한 채 코로나바이러스의 경로나 여행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심각한 재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증가일로에 있던 시아파 관련 관광지인 ‘쿰’ 지역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마저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모 종교집단이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 정치와 종교의 기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이중성과 이기심이 많은 사람을 병들고 아프게 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든 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짓과 위선과 은폐로부터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봉사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을 향한 예의이며 교회 지도자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한 성경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중심에 은폐와 거짓으로 점철된 특정한 종교집단이 자리를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역이 어디 코로나바이러스 한 부분만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구호와 외침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그 구호와 외침이 나의 희생과 진실을 요구했을 때 행여라도 슬쩍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서 없을까요. 그런 욕구를 누르고 비록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가슴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진실과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둠과 위협이 찾아왔을 때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고 드러납니다” 라고.

thechoi82@yahoo.com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 762-0011 / 뉴저지(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466.422.7330 / 201.431.9753  
 진료: 안내, 치아미백(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 info@chpress.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코로나바이러스와 커먼센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며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보려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노선 운항을 취소, 중국여행 금지령, 중국인 및 중국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 등 강력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컨트롤이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중국인 혐오, 더 나아가 모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문 '루 쿠리에 피카르'는 1면에 마스크를 쓴 중국 여성의 이미지와 '누런동

이 주의'를 헤드라인으로 실었습니다.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은 동양계 학생의 수업 참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더럽다고 욕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의 말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적은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인종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중국 정부가 몰상식한 행동으로 사태를 키웠습니다. 중국정부가 '우한폐렴' 사태를 초기에 경고한 우한중심병원의 안과 의사 고(故) 리원량을 사회질서를 해치는 거짓 소문 유포자로 낙인을 찍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다가 발병 한 달 후에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일으켜 바이러스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가 올랐고, 한국에서는 이미 받은 주문을 취소하는 판매자도 있었고, 인천 공항에서는 '마스크 1만개'를 반출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상식한 행동은 바이러스 방지와 확산을 막는 노력에 큰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30초 손 씻기, 손으로 얼굴, 눈, 입 등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악수 대신에 목레' 등 각자 기본적인 개인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몰상식한 행동을 거부해야 합니다. 욕설,

협박, 혐오,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사람들과 공포,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SNS에 퍼지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 내린 '하물상식한 행동은 바이러스 방지와 확산을 막는 노력에 큰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30초 손 씻기, 손으로 얼굴, 눈, 입 등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악수 대신에 목레' 등 각자 기본적인 개인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몰상식한 행동을 거부해야 합니다. 욕설,

협박, 혐오,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사람들과 공포,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SNS에 퍼지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 내린 '하물상식한 행동은 바이러스 방지와 확산을 막는 노력에 큰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30초 손 씻기, 손으로 얼굴, 눈, 입 등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악수 대신에 목레' 등 각자 기본적인 개인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몰상식한 행동을 거부해야 합니다. 욕설,

협박, 혐오,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사람들과 공포,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SNS에 퍼지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 내린 '하물상식한 행동은 바이러스 방지와 확산을 막는 노력에 큰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30초 손 씻기, 손으로 얼굴, 눈, 입 등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악수 대신에 목레' 등 각자 기본적인 개인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몰상식한 행동을 거부해야 합니다. 욕설,

# 푸/른/초/장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가 무인도에서 살 때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맹수와 혹은 열악한 자연 환경보다는 해변의 모래사장에 자기 발걸음 이외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제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짐승보다 자연 재해보다 더욱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이 없이 살 수 없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인간관계를 암시합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조용한 도시, '오랑'이라 불리는 곳에 페스트가 번져가면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어느 날 페스트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오랑시는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폐쇄되었던 오랑시의 문이 열리고 시민들이 환호하며 축하합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사 리외가 이렇게 말합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으며, 가구 등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는 저 쥐들을 잠에서 일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두려움과 더불어 두려움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몹시 두려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안하게 왕궁에 앉아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I.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다윗은 "주님, 내눈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믿음의 대상은(the object of David's faith) 하나님이며, 다윗의 믿음의 내용(the content of David's faith)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다윗은 "주님, 내눈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가슴에 맺힌 한, 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들을 하나님의 병에 담

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다윗은 "주님, 내눈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가슴에 맺힌 한, 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들을 하나님의 병에 담

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다윗은 "주님, 내눈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가슴에 맺힌 한, 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들을 하나님의 병에 담

##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시편 56편 1-13절

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 바이러스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전염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황열병은 공중보건 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도망쳤고, 병원엔 환자들로 넘쳐났고, 시체는 집에서 썩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리처드 앨런(Richard Allen)의 지도 아래 흑인 교회가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황열병에 면역성이 있다고 가정했으며, 자유흑인공동체가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했다. 그러나 앨런과 그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

는 교회에 의해 쫓겨났으며,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갔어도,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배척을 당했지만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염병의 위협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조차 쫓겨난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이 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에 의해 알려졌고, 이것이 바로 AME가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AME 교인이 아니었던 자유 흑인들은 전염병 동안 자신들이 병마와 싸웠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비록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시키고 물러서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견디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선포

는 교회에 의해 쫓겨났으며,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갔어도,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배척을 당했지만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염병의 위협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조차 쫓겨난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이 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에 의해 알려졌고, 이것이 바로 AME가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AME 교인이 아니었던 자유 흑인들은 전염병 동안 자신들이 병마와 싸웠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비록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시키고 물러서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견디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선포

는 교회에 의해 쫓겨났으며,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갔어도,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배척을 당했지만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염병의 위협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조차 쫓겨난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이 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에 의해 알려졌고, 이것이 바로 AME가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AME 교인이 아니었던 자유 흑인들은 전염병 동안 자신들이 병마와 싸웠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비록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시키고 물러서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견디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선포

는 교회에 의해 쫓겨났으며,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갔어도,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배척을 당했지만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염병의 위협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조차 쫓겨난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이 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에 의해 알려졌고, 이것이 바로 AME가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AME 교인이 아니었던 자유 흑인들은 전염병 동안 자신들이 병마와 싸웠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비록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시키고 물러서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견디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선포

는 교회에 의해 쫓겨났으며,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갔어도,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배척을 당했지만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염병의 위협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조차 쫓겨난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이 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에 의해 알려졌고, 이것이 바로 AME가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AME 교인이 아니었던 자유 흑인들은 전염병 동안 자신들이 병마와 싸웠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비록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시키고 물러서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견디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선포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디즈니사가 아이들에게 세뇌하려는 비윤리적인 LGBT 문화 어디까지 왔나?



디즈니사의 아이들이 동성애자의 사랑을 표현한 첫 드라마  
디즈니사는 여전히 Kid-friendly, Family-friendly 회사일까요? 아니면, 예쁘고 멋진 공주와 왕자의 탈을 쓴 무서운 야수일까요?

지금부터 디즈니사가 지난 몇 년 동안 내놓은 영화, 어린이 만화, 드라마 몇 가지만 소개드리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디즈니의 숨겨진 어두운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디즈니 보이콧 운동에도 참여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2019년 디즈니 XD채널에 첫 번째 “



A Disney XD 어린이 만화 “Star vs. The Forces of Evil”(2/28/2017)에서 게이들의 키스장면들이 몇 번이나 나옴(Photo: YouTube/Screengrab)

소년공주”가 나타났습니다.

Star vs. the Forces of Evil(별과 악의 세력)이라는 어린이 만화방송 시리즈에서 캐릭터중 하나인 말코(arco)가 학교의 무서운 교장에게서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투루디나(Turdina)라는 이름의 공주로 위장하고 공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주”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이 우연히 투르디나 공주 가슴에 털 있는 것을 보고 공주가 남자인 것을 알게 되어 투루디나로 변장한 말코를 쫓아내려고 하자, 학교의 공주들이 ‘LGBT의 고전적인 이데올로기 슬로건’을 외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공주도 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공주가 남자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남자도 원하면 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투르디나는 마음의 상태가 여자인 것입니다!” 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이지요? 특별히 “마음의 상태가 여자인 것...” 즉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 성별을 의미하지요. 처음에는 공주들을 구하러 가는 멋진 남성이 여장을 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원하는 젠더가 곧 성별, 너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디즈니사는 이 만화시리즈를 통해 분명하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 토이스토리(Toy Story) 4

Toy Story 4에서도 LGBT reference가 은근슬쩍 몰래 들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한 장면에서 두 엄마가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두뇌회전이 어른보다 훨씬 빠르고 마음이 순진한 아이들에게는 비록 한 장면이지만 확실하고 명백하게 금방 포착(capture) 되는 장면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어리게는 3살부터) 토이 스토리 4를 보고 그 “두 엄마”를 궁금해합니다. “어? 어떻게 두 엄마가 가능하지? 아빠는 어디 있을까? 두 여성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등등의 매우 상식적인 질문들이죠.

### 겨울왕국(FROZEN) 2

겨울왕국(Frozen) 첫 회에서 레즈비언틱한 모습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겨울왕국 2의 발표와 함께 엘사가 레즈비언으로 나오는 것이 공식적으로(officially) 발표하였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Frozen 2는 어린이 봐도 섬뜩한 어두운 세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잘못 등급(rating) 되었다는 논평이 있습니다.

2018년 JUNGLE CRUISE와 2016년 FINDING DORY 그리고 ZOOTOPIA 모든 어린이 만화 영화에 동성애를 묘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디즈니 주니어(Disney Junior)는 2-5세 어린이를 위한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Doc McStuffins’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2명의 동성애 엄마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겨우 2살 밖에 안된 아이들이 보는 에피소드에 말입니다.

BEAUTY and the BEAST

Le Fou와 Gaston 사이의 동성애 장면을 포함했습니다.

디즈니의 성별 이데올로기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회사는 동성애 선두주자로서 1991년부터



디즈니 Doc McStuffins의 A 2-Mom Family and We are here for it의 한 장면

매년 6월 첫 토요일에 플로리다주 Disney World Gay Day 동성애자의 날이 있습니다. 디즈니의 동성애의 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금지(gay pride) 행사로 수십만 명의 LGBT와 그들의 가족, 친구 및 지지자들이 6일간의 모임에 참석할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디즈니 Doc McStuffins의 A 2-Mom Family and We are here for it의 한 장면

더 자세한 내용들은 Tvnex.org에 가서 찾아보실 수 있고, 디즈니 Plus 또는 Free Trial 취소하는 방법과 서명 동맹카드 있으니 꼭 가서 보시고 서명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벌 수 있는 재정들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며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강력히 건설시키는 디즈니세계에 과연 그 비싼 티켓을 사고 이런 채널, 영화들을 봐야할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 청년부에 속한 남성 청년입니다. 저 자신의 키는 약 165센티 정도로 고등학생 때부터 커지 않아 키가 작은 편이므로 늘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어 이성 간에도 자신감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기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Cerritos에서 Lee

**A:**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Positive self-esteem)을 가져야합니다. 인간에게 부모나 나의 피부색깔이나 키나 외모는 내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지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라인 홀드 니버의 “평안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형제님, 키의 크고 작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현재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주어진 환경,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트립없이 두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민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말콤 엑스(Malcolm X, 1925-1965)라는 사람입니다. 말콤 엑스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말콤 엑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원망스러운 나머지 마음에 백인을 향한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백인을 미워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백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 백인이 되고자 어렸을 때부터 비누 스킨 크림 등을 사다가 그냥 계속 자기 피부를 문질렀습니다. 백인처럼 하얗게 되려고 별별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콤 엑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철저히 흑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까만 흑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사회에 이런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Black is beautiful”(까만 것도 아름답다). 이것은 흑인들의 열등한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말이었습니다. 흑인들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작다는 것은 키가 작아 작은 것이 아니라 꿈이 작고 생각이 작고 마음이 작고 믿음이 작고 베푸는 손이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합니다. 정말 큰 사람은 꿈이 크고 마음씨가 크고 믿음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운영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드립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수정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 주소	.....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 주소	.....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0표시를 하세요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 북서부의 부족들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주로 나즈막한 산구릉지를 따라 거주한다. 그들은 몬 크메르어(語)족과타이어(語)족에서 유래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북서부 부족들은 대개 자신들의 부족언어와 북부 타이어, 2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주로 북부 타이어 문자를 사용한다.



수가 태국에 정착했다. 태국 북서지역은 원래 6세기에 건국된 초기 몬 왕국의 영토였다. 13세기에 몬 왕국은 타이족에 의해 멸망됐고, 이로 인해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서부 지역들은 방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태국은 잦은 정부교체와 군사폭동을 겪었고 전쟁과 재이주(移住)로 인해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 부족들은 태국 북부의 산악지대에 살면서 화전(slash and burn)농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속

적인 화전법의 이용으로 이 지역에 자연 서식하던 열대 상록림 중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 결국 부족민들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옮겨 다녀야 했다. 태국정부는 농민들에게 평지로 이주해 관개 논에서 쌀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화전농업을 하고 있다.

부족들에게 쌀은 가장 주요한 작물이다. 수수와 양귀비도 경작된다. 쌀벼(Dry rice)를 경작할 때는 쟁기나 황소를 쓰기 보다는 "땅 파는 막대기(digging stick)"를 이용한다. 자체 소비를 위해서나 판매를 위해 논벼(wet rice)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소가 끄는 원시적인 목재농기구를 이용한다. 오랫동안 아편은 부족들에게 현금을 얻기 위한 주요 원천이었다. 허나 아편거래 역제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돼지 사육과 후추재배 등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 마을들은 논으로 둘러

싸인 다소 움기된 평지나 도로 변의 고지대에 위치해있다. 마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옥들이 있다. 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튼튼한 마호가니 가옥에서 사는 경우도 있으며, 이 집은 고상식 가옥에다 판자마루와 타일로 된 지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과 흙마루로 된 대나무 가옥에서 산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조직은 불교 사찰이다. 이곳은 마을사람들 간의 단합을 상징하며 마을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매우 정중하며, 예의 바르고 호의적이다. 가족은 사회형성의 기반단위가 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바른 사회행동방식을 배운다. 즉 상사(上使)나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독립심과 자립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북서부 부족들의 사회는 아주 조직적이다. 사회계층은 일

반적으로 연령, 직업과 부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시골의 농부들은 장인들이나 상인, 도시 공무원들보다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며, 승려들은 독립적인 계급으로 인식된다. 특히, 루(Lu)족은 솜씨 있는 은세공업자들이다. 남자들은 유명한 루족의 검(Lu sword)을 만들며 여자들은 방직과 자수 등에 뛰어나다. 크무족(Khmu)은 능력 있는 미술사들로 평판이 높다.

신앙

불교는 기원전 329년에 태국에 소개됐다. 야오족을 제외한 많은 부족들이 불교 요소를 전통적인 정령신앙(에니미즘)과 혼합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령과 물건을 예게서 도움을 구한다. 그들은 "피(phi)"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지역의 부족들 중에서 타이

족이나 라오족들은 영적으로 크무족들을 가장 존경하는데, 이는 크무족이 다른 부족들보다 대지(大地)와 그 땅의 영토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각 부족마다 적어도 하나의 선교단체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니옹족(Nyong)이나 쿤족(Hkun)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이 모든 부족들 가운데 일할 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현재 이 부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완역본을 가지고 있는 부족은 없으며 니옹족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성경의 일부는 갖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 여성과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교회도 '신천지 경계'?

중국 교회도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경계령을 내렸다. 중국 장수성 우시시 기독교 양회는 지난 달 27일 '한국의 신천지 등 이단 사교(邪敎) 방지를 위한 통지'를 각 교회에 전하고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를 통해 퍼지고 있으니 발견 즉시 현지 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독교 양회는 "신천지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공인하는 사교로 한국인 이만희가 1984년 3월 14일 설립했다"면서 "신천지가 기타 사교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이것이 성경에 부합되고 이것이 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공의 사회단체라는 이름 아래 봉사 사랑 평화라는 구실로 공공복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 불법적 포교 활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양회는 "한국이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시기에도 신천지는 여전히 집회를 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검사받는 것을 거절하며 명단을 속였다"면서 "그로 인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긴급 상황이 해제되기 전인 만큼 각 시와 구는 계속해서 예방 활동을 잘하는 동시에 이단 사교를 고도로 경계하고 신도들에게 이단에 참여하지 않도록 일깨워야 한다"면서 "만약 이단 사교를 발견하면 곧바로 현지 종교 부문 및 시 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천지,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내 전도

신천지가 코로나 19 발발 이후에도 중국내 포교를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병으로 중국과의 인적 교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천지가 오히려 이를 적극적인 포교기회로 삼았음이 드러나는 정황이다.



중국 내 소식통은 지난 1월 25일쯤 중국 내 신천지 신도가 전염병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자료를 만들고 이와 함께 QR코드를 삽입해 위챗을 통한 채팅방 그룹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정황이 보인다. 첨부 사진 하단에는 'PRAY'라며 함께 기도하자는 문구도 부착했다.

또한 신천지가 우한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한시 장한구의 몇 건물과 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포교 모임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신천지는 중국 내에서도 교회 내 잠입해 교인들을 빼오는 '추수꾼' 활동을 해왔다는 정황이 중국 내부 고발

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신천지 신도 일부의 1월 우한 방문을 확인한 바 있다. 중국 우한 내 코로나 발병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신도가 우한을 방문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WHO, 코로나19 위험도 높여

세계 보건 기구(WHO)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테워드 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지금까지 WHO는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중국만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높음' 수준을 유지하다 상향했다.

사무총장은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피해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우 우려된다"며 "전날 덴마크 등 5개국에 첫 확진자를 보고했는데 모두 이탈리아와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에서 14개국으로 24건의 사례가 퍼졌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 접촉 등을 여전히 추적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서 자유롭게 퍼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발견과 격리, 환자 관리, 접촉자 추적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여전히 억제할 기회가 있다"며 "각국에 각기 다른 시나리오가 있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전염의 사슬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백신 작업에 진척이 있다"며 "백신 20개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여러 치료법이 임상 시험 중이다. 우리는 첫 결과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반인은 마스크 필요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료진이나 감염자가 아닌 일반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한 사람까지 마스크 사재기에 나설 경우 의료진과 환자에게 돌아갈 몫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도리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며 마스크가 있더라도 외출 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1일 조언했다. 코로나19는 공기 중 전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야외 마스크 착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용 N95 마스크는 일반인

에게 더욱 불필요하며 도리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

엘리 페렌세비치 아이오와 의대 교수는 포브스에 "건강한 일반인은 마스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착용해서도 안 된다"며 "마스크가 건강한 사람을 감염에서 보호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페렌세비치 교수는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면 얼굴을 평소보다 더 자주 만지게 되고 그 결과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며 "마스크를 쓰고 벗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아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람은 감염자다. 의료용 마스크는 착용자의 침방울을 안에 가둬들으로써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과 감염인 등 감염자를 가까이하는 사람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페렌세비치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타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증상이 느껴지면 마스크를 착용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같은 설명을 내놓고 있다. CDC는 코로나19 관련 공지문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는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며 "마스크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의료진, 감염인 등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롬 애덤스 미 연방의무감도 지남달 29일 트위터에 "마스크 구매를 멈추라"며 "마스크는 일반 대중의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마스크 사재기는) 의료진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역시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UAE 보건예방부는 트위터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N95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일반인이 N95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기에 부담을 가져와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UAE 보건부는 "특히 아동의 N95 마스크 착용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프간전, 18년 만에 종식 국면

2001년 9·11 테러 후 지금까지 이어지며 무수한 사상자를 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8년 만에 종식 국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아프간 전쟁을 종결짓기로 했다. 미국이 내년 6월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전면 철수하는 대신 탈레반은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절연하는 조건이다. 다만 합의가 원활히 이행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잘마이 칼릴자드 미 국무부 아프간 특사와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탈레반 공동장실자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체결 직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주 성공적인 협상을 해냈다"며 "모두가 전쟁에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탈레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나쁜 일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탈레반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하에서 서명식을 지켜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탈레반 통치 시절 아프간에서 모의됐던 9·11 테러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미군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룬 승리를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탈레반이 우리 측 조치에 발맞춰 합의를 이행할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아프간이 국제 테러 조직의 기지가 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합의문에서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동맹군 병력을 14개월 후인 내년 6월까지 전면 철군기로 했다. 미군은 합의 이행의 첫 단계로서 체결 당일로부터 135일 안에 현재 1만2000여명 규모인 아프간 주둔 병력을 8600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탈레반 측은 아프간 영토 내에서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근거지로 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합의가 이행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전직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인 WP에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의 약속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위 군 관리와 정보 당국자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 "(탈레반은) 그저 미군 철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트위터에 "탈레반과의 합의는 미국 민간인을 용납 못할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티지 전격 경선 포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아이오와 돌풍'을 일으킨 피트 부티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경선 시작 한 달 만에 전격 하차했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1일(현지시간) 부티지 전 시장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우스벤드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티지 전 시장은 "나는 오늘 밤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왔던 것처럼 최종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티지 전 시장은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에서 의외의 1위를 차지하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체할 '젊은 중도주자'의 가능성을 보였다. 38세라는 젊은 나이, 사우스벤드 시장 연임뿐인 정치 경력, 하버드-옥스퍼드 졸업, 7개 국어,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성애자 등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치러진 네바다 경선에선 3위로 주저앉았고,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4위에 그쳤다. NYT는 "부티지지는 라틴계 유권자가 많은 네바다에서 (2위와 격차가 큰) 3위를 차지했고, 흑인 유권자가 과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4위에 그쳤다"고 전했다. 민주당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색인종에게 외면받으면서 경선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하차한 부티지 전 시장의 지지율은 '노장 중도파'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 대의원 3분의 1이 걸린 '슈퍼화요일'(3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부티지 전 시장의 사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민주당 중도파의 압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역시 중도파인 블룸버그 전 시장이 슈퍼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합류하는 점이 변수다.

구원을 베푸는 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은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학창시절 배운 세계사 과목 내용 중 유럽의 역사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세유럽이 마감되고 근대사회로 연결되는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소개한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렵듯이 종교개혁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생활의 일부뿐이거니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탄을 받을 만한 뉴스거리가 많아질수록 교회에 대한 마음을 더욱 닫는 형편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 없이 16세기 유럽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당시 교회와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중세는 교회가 세상이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가 사회 전체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이다. 중세의 역사는 교회가 서유럽 전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세속 정치와의 권력다툼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교회가 이긴 것이다. 중세 유럽인들은 교회가 전부였다. 그럴 수밖에 없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자녀가 출생하면 세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유아세례는 그가 교회에 속한다는 표징이기 때문이었다. 왜 교회에 속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교회가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이다. 중세교회는 다른 교리에 앞서 '교회론'을 논의하였다. 교회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 중세 시대에 로마가톨릭교회의 위치가 확고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곳'이라는 개념보다 '구원을 베푸는 기관'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교회 개혁

'종교개혁'을 영어로 'The Reformation' 또는 'The Reformations'로 표기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사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낱양상에 따라 16세기에 일어난 개혁운동을 통칭하거나, 그 당시 개혁운동과 연관되었던 루터파, 개혁신파, 재세례파, 성공회 등의 다양한 분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현재 기독교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종교개혁'이란 표현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흥미로운 것은, 원래 'The Reformation'이란 단어에서

'종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그 개혁'이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6세기 교회개혁운동이 마치 그 당시 종교적 관점의 교정 내지는 부분적 수정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 교과서를 작성하는 역사가들이 어떤 관점에서 종교개혁과 연관된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할까? 이런 기회를 통해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에 없었기 때문이다. 16세기 교회개혁자들의 성공 여부는 교회의 지시에 맹종하는데 익숙하던 신앙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있었다. 교회개혁은 결코 녹록한 사명이 아니었다.

초대 교회

개혁자들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 교회 타락였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는 '구원의 통로'라는 로마가톨릭

관계자들을 가장 성가시게 했던 것은 개인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유럽 전역에 퍼져간 것이었다. 그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었다. 마치 구원이 자신들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쉽게 여겼다. 특히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는 환경 속에 있던 성직자들은 개혁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들을 보고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신앙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도들의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던 성직자들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이들은 개혁자들처럼 중세교회의 신학적 오류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로마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열망했던 자들이었다.

신학 개혁

16세기 개혁자들이 바라보았던 중세 말 교회의 모습은 참담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빠짐없이 강조하는 교황을 포함한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문제시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비도덕적인 교회를 더욱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잣대 삼아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려 하였다. 그것은 중세교회의 신학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중세교회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신학의 오류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신학 때문이었다. 오직 교회가 구원의 통로임을 강조하는 중세신학은 성직자들의 위치와 역할을 절대화 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은 곧 사제들의 사역이 없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 없이는 세례식과 성찬식 등 로마교회의 7가지 성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일한 방도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중세 로마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도록 해야 한다는 개혁자들의 주장을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긴 이유로 신학적인 동기가 있다.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산출하는 도구이므로 교회가 성경보다 당면한 앞서야 한다는 신학체계 안에 갇혀있었다. 그들은 오직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 받았기에 평신도는 성경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포기하고 사제의 도움을 받는 일에 충실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16세기 개혁자들은 신학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 속에서도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가 확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의 오류가 어그러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두터운 전통의 틀에 갇혀있던 중세신학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며 개혁의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5)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생겨난 개신교의 장점을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특정한 신학 전통이나 교파의 관점을 피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기독교 외부의 관점에서 보면 구교나 신교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리교회의 주장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세기 교부 아가타스틴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성경적 사실에 근거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중세 1000년

것이다. 중세 말 로마교회 안에는 진지한 신학적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전에는 교회를 대표할 만한 신학자들이 없었다. 원래 중세신학을 주도하던 자들의 수가 매우 적기도 하였지만 성직자들이 신학적

세속정치와 권력다툼에서 이긴 중세교회는 '구원 베푸는 기관'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은 신학개념(성경보다 교회) 중점 둔 교회개혁운동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한 종교 안에서 이뤄진 개혁운동으로 오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오류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교회개혁운동'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이 매우 훌륭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교회는 중세 유럽인들의 모든 것이었다. 그들의 종교였고 삶의 중심이었다. 개혁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수용한 자들과 거부한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종교였던 교회 안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사실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확신하던 유럽인들에게 우리가 교회라는 매개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매우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개혁자들의 편에 설 때 자신의 구원 자체가 위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을 지내면서 교회는 아가타스틴이 정리한 교회관을 무시하였다. 베드로부터 시작된 사도적 권위가 계승되어야 참된 교회라며, 조직화된 절대적인 교회제도를 발전시켰다. 교황이 교회의 최고 위치일 뿐 아니라, 국가의 머리가 되어 절대군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가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으로부터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16세기 개혁자들은 결코 이상적인 교회를 꿈에 품고 운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 매우 단순하고 순수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개혁자들의 주장 가운데 로마교회

고민보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하는데 더욱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자들에 의해 교회에 혼돈이 찾아오자 로마교회의 전통에 젖어 있던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거의 유사한 반응이 보였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혁자들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들이 무섭게 변했다. 초대교회로 환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로마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였다. 로마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을 칼과 불로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교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성도들이 개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를 찾아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확신하던 성직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라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미전교회, 린즈장로교회, 아라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진교회

## 리더십 코멘터리 (106)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바이러스 재난속의 리더십

재난이 발생할 때 묻는 두 가지 질문

위기라는 불청객은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것은 예기치 않게 닥친다. 그래서 삶 가운데 뜻밖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고 고통스럽다. 어떻게든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리더는 많은 위기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전체를 암울하게 휘감고 있다. 사람들은 매일 관련 뉴스를 보면서 전염병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

데 생활하고 있다. 교회와 사회 모두가 엄청난 재난 속에 빠져있다. 위기는 어원적으로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인데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맡은 리더의 가장 큰 도전은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우리의 조 직을 위해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상처는 회복되고 위기는 극복되는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에 맞

자신감을 가로막는 낙심이 가장 큰 적이다. 영적리더에게도 낙심이 문제가 된다. 사업가, 셀러리엔, 연예인, 정치가도 모두 그렇다. 가정의 아버지들도 자신감을 잃을 때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된다. 가장으로서 자신감이 없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다면 절망상태가 되고 병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리더에게 있다

리더가 만난 영적 위기는 리더만의 것이 아니다. 작게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위기이며, 크게는 교회와 공동체의 위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리더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도 리더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바로 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리더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위기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리더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1:7)라는 말씀처럼

### 위기 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 성찰 기회 삼아 리더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구해야

보며 살고 있다. 낙심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긴장하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지켜보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나의 죄, 우리의 불의한 때문인가? 아니면 감추어진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엄중한 위기적 재난이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이다. 재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일관된 사상은 그 속에 개인의 죄, 그리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죄, 특히 권력을 잡고 있는 리더의 죄악이 들어 있다는 것이며 성경은 진실을 교훈하고 있다. 어떤 고난과 재난을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의 특정한 죄와 연관 짓는 것은 인간의 오만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죄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의 후폭풍이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망의 남용으로 인한 죄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겸허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위기극복의 출발점

지금 우리 모두는 위기가운데 믿음하고 있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좌절감 가운

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깨끗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이다.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의 이러한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과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지가 되어준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없는데 성도들과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 줄 리 없다. 그래서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라

위기극복의 출발점은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지 않는 물건을 고객에게 팔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승리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없다. 폭풍이 거세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계자가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폭풍의 위기 앞에서 리더가 자신감을 갖고 보여주어야 할 일이다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리더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리더에게

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적리더 모두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을 믿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이러스 재난 속에서 깨닫게 된다. 해가 뜨고,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배우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한다. 이 위기를 초래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부터 이런 재난이 다가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파괴적인 약탈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진지하게 묻고 실천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깨어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겸손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긍휼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본다.

sondongwon@gmail.com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버전교회 협력)

### 괴로움의 시간을 자기 발전 시간으로

질문: 아내와 성격차이가 많아 힘든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의 진정한 반려자를 찾은 듯 하여 집을 떠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곧 후회하며 돌아왔을 때는 법정에서 날아온 이혼확정서류와 함께 아내는 이미 재혼을 한 후였습니다.

아들은 주중엔 제 엄마 집에 주말엔 내 집에, 그 다음 주는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어디를 가거나 허전한 마음과 함께 다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내게 뭔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될만한 말을 부탁드립니다.

답: 안타깝게도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셨으니 어쩌면 어떤 말로도 별 보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아이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 과속으로 산길을 내려왔을 때처럼 어질어질하고 귀가 멍한, 생각도 집중도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상실감의 정도를 굳이 나누어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진 정신적 이혼단계, 이혼 서류에 서명한 법적 이혼단계,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사회적 이혼단계로 보는데 역시 법적 서류가 올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지요.

회복을 위해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생 끝이다'가 아닌 다른 각도로 봐야 할 것인데,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두 번째, 자신이 상실한 것에 대해 애痛的 시간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놀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신약화나 운동도 임 등의 취미 활동이 감정 분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사우나를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책을 마음껏 본다거나 여행을 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치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한 부모회복모임이 있나 찾아보고 참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밖에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 보면서 새로운 목표와 함께 인생의 다음 장을 열도록 하는 건데요, '깨어짐의 축복(Blessings of Brokenness, Charles Stanley)'이라는 책에서는 가정의 깨어짐 혹은 홀로됨이라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괴로움의 시간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든다면 다음의 두 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는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곧 억지로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반대로 비극의 주인공인 양 슬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자신을 측은히 여기면서 지나간 삶을 다른 아픔과 합쳐 그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편사부터 아버지를 잃었고 늘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라며 헤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 텐데, 우는 사 처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벧전5:8)는 '그래, 맞아. 넌 슬픈 존재야' 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쓴 뿌리를 키우며 아무런 희망과 기대감이 없는 침체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0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h3>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생: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9:30, 11:30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밀물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인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후 7:00                  영어예배(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머무는교회</h4>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예배 장소)</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pa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714)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효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타지역원</h4>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 협동부서)                  사역대상: (월-금) 오전 10:30-오후 4:30(본당)                  1. 여성사역                  2. 20세 청년도 영성리더                  3. 가정사역                  4. 다문화사역                  http://www.elpista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 오전 9:30(본당)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드 시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한미예배: 오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3229 N. Verdugo Road, Glendale, CA 91208</p>	<h4>하늘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 '마침내 임하시네'                  오전 9:30                  성경대명회: 오전 7:00(금)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자충수(自充手)

자충수라는 말은 바둑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자기의 수를 자기가 매워 죽음을 자초하거나 스스로 기회를 없앤다는 말로 축구에서 가끔 벌어지는 자살골과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세상에서 회자되는 재미있는 말도 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보수는 구심점이 결여되어 중구난방이고 진보는 일사불란하지만 독선의 부메랑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자충수의 시작은 아마도 에덴동산이 아닐까 싶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어보겠다는 헛된 욕망으로 인해 죽음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곧 자충수였고 그 상인 죽음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당금의 세계는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초비상이 걸려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는 중이

다. 세계의 패권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가장 먼저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방역이나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은 중국을 오가는 국경을 폐쇄했을 정도다. 그뿐이 아니다. 같은 중국 내에서도 발병거점인 우한과 후베이성 인민들의 유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명목 하에 도시들이 고립되고 있다.

중국 전역을 드론이 엄중감시하면서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하여 심어 일찍 규율을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공권력까지 등장했다. 인심과 인격까지 전염병의 공포에 매몰되었고 필요시 토지, 시설, 자동차 등의 사유재산을 징발하겠다는 지방정부의 법 개정에도 따라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의사와 병원의

불신까지 겹쳐 14억 인민들이 겪는 공포와 원망으로 중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이 모든 원인과 결과들이 다 자충수로 드러나고 있다. 감추고 덮고 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일 때는 잘잘못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고 지혜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가 다르지 않다.

자충수 중에도 최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속이는 것이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 땅에 묻고는 하나님의 물음에 시치미를 떼다 죽음보다 더 가혹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부정적으로 보고한 열 명의 사십 년 동안 사막을 방황하다 모두 죽고 말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부를 감추려는 꾀를 부리다 죽임을 당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편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 여긴 헤롯왕은 별레에게 먹혀 죽었다(

행12:24). 이 모두가 다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결과였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다보니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번역이다.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번역기는 혼잡케 된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악한 꾀를 이뤄내려는 언어가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임할 것이다.

자충수를 두는 이유는 결국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진리이거늘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았다. 톨스토이의 참회록 우화에 사자에 쫓긴 사람이 우물로 뛰어 들었는데 우물 바닥에서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있어 밖으로 나갈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서글픈 인생이라고 소개한

다. 우물 벽 틈에서 자란 연약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나뭇잎에서 흘러내리는 몇 방울의 꿀을 맛보며 위안을 삼을 때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연약한 나뭇가지까지 잡아먹고 있는 처지가 인생들의 현주소라고 말한다.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으로 세월이 흐르면 결국 나뭇가지가 썩어 거기에 위태하게 매달려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들의 미래인데 희망의 미래가 아니라 죽음과 저주의 미래를 만든 장본인이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둔 수가 죽음의 자충수인 것이다.

인생이라는 바둑판 앞에 앉아 희열의 미소를 머금고 두고 있는 최선, 최상의 수가 자신과 이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충수가 아닐까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다.



제101회 3.1절기념 대뉴욕 구국결기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지키자!

제101회 3.1절기념 대뉴욕 구국결기대회

제 101회 3.1절 기념 대뉴욕 구국결기대회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총회/뉴욕지회 주최로 3월 1일 저녁 5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서 열렸다.

1부 3.1절 기념영화 "유관순과 3호 감방"영화를 상영하고 2부는 기념식 및 구국결기대회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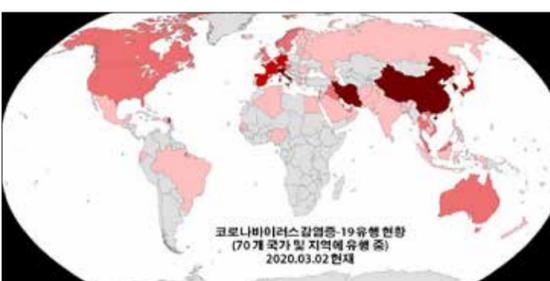
대회는 뉴욕지회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사회로 김명옥 목사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축가 뉴욕장로성가단, 강연 양동자 박사, 특별연주 황일봉 장로, 강연 김남수 목사, 특별구국 기도 송병기 목사, 노기송 목사, 권기문 구호장독, 만세3장 등으로 이어졌다. 뉴욕지회장 김명옥 목사는

“3.1절 독립운동을 하다가 7500명이 사망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맞고 있다. 75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이 결기대회를 열었으니 모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사 양동자 박사는 이승만 박사 기념연구재단 및 박정희 대통령 기념연구재단 총재로 워싱턴DC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철리: 대한민국 건국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박사의 삶(1875-1965)”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양 박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오늘날 한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공산과 몰락 속에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 일어나자”고 역설했다.

(10면으로 계속)



KWMO는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을 실시한다

gmanradio.org 가입 후 기도제목 공유

KWMO, 코로나바이러스19 소멸위한중보기도운동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목숨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교회운동(KWMO, 대표 김정한 선교사)는 '코로나바이러스19 소멸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코소중)'을 실시한다. 코소중은 매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을 업데이트 하며 GMAN 홈페이지와 중보기도 전용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다. 그

리고 중보기도회원들의 기도제목과 기도문을 공유해 올리게 된다.

신규가입자는 반드시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은 gmanradio.org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목표는 1만명이며 전 세계 한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다.

김정한 선교사는 “코로나19가

한국선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순절 기간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로 공예배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선교사는 “한국의 영적지도자들이 먼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코소중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가 소멸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지속적으로 기도문을 작성할 것이다. 이번 중보기도운동에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참여해 기도내용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정한 선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선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운동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714)350-6957 (박준호 기자)

JAMA 강순영 목사 샬롯 방문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대표 강순영 목사가 2월 20일부터 샬롯간 샬롯을 방문했다.

강 목사는 LA에서 한기홍 목사를 비롯한 한인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다민족기도회를 열

정적으로 운영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후속조치로,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총선과 미국대선을 앞에 놓고 미국 전역에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 전국 50개 도시를 순방 중에 있다.

강순영 목사는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선교관에 머물면서 교협 회장 김정일 목사와, 세계기도모임 대표 박형우 목사, 김넷 사무총장 이현석 목사, 전기현 장로와 또 전유니버시티 교수들인 이영기 박사, 박세정 박사와 함께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을 주선한 나성균 목

사는 “이미 깊은 모임이었다”며 “강순영 목사가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이라는 책자를 지역 교계에 전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기현 장로는 강 목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샬롯을 방문,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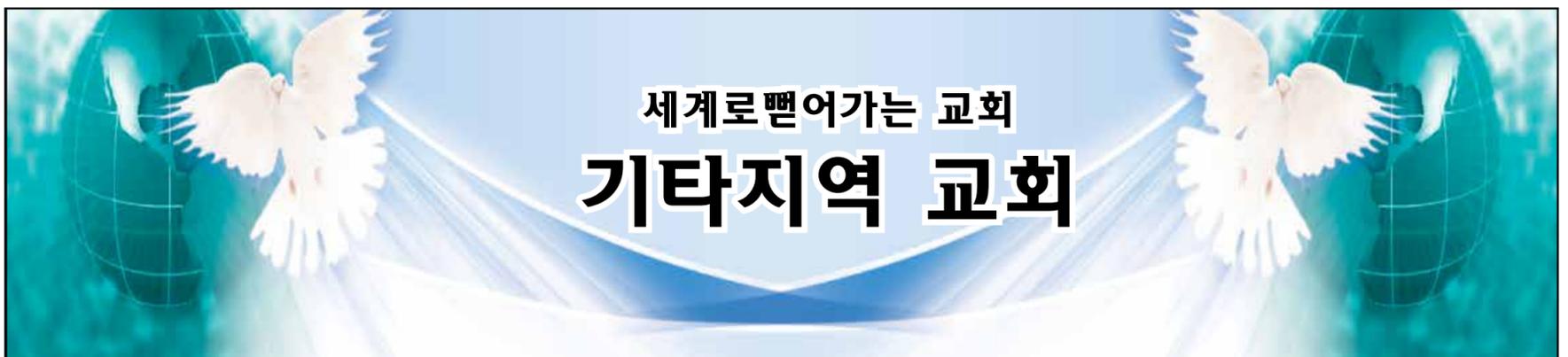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Mongo, Bexco, Benel, Boston,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with contact info and a church icon.

# 동부교계 게시판 east

##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 목사안수예배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회장 이종현 목사) 목사안수예배가 3월 15일(주일) 오후 5시 소자선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이영택(소자선교회 담임), 박영준(뉴욕하늘샘교회 전도사), 배현석(맨하탄선교회 담임) 씨가 목사안수를 받는다.

▲문의: (718)461-8464

## '세계기도일' 기도회 뉴욕교회 순회

세계 여성 기독교신자들이 합심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 133주년을 맞아 뉴욕일원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열린다. 3월 △4일 목양장로교회(담임 허신국 목사)를 시작으로 △6일 신광교회(강주호 목사), 뉴욕늘기쁨교회(김홍석 목사),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11일 뉴욕할렐루야교회(한기술 목사) △20일 뉴욕그레이트네교회(양민석 목사)와 태넬교회(이현숙 목사), 연합메트로폴리탄교회(김진우 목사) 등 8곳에서 열린다.

▲문의: (516)466-8063(그레이트네교회)

## 웨체스터교협 후원금 모금

뉴욕웨체스터교회협의회(회장 허경열 목사)는 협의회 소속 안성국 목사(뉴욕능력교회 담임)의 질병치료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다. 안성국牧사는 17년전 수술한 신부전증이 재발해 신장치료를 이식을 해야 할 상황이다. 수표 보낼 주소는 101 Lincoln Ave, #E, 1Fl, West Harrison, NY 10604, Payble: The Westchester Council

▲문의: (914)261-9569, 772-4036

## 뉴욕한인침례지방회 3월 특강

뉴욕한인침례지방회 3월 특강이 17일(화) 오전 11시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린다. "변화-리더십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김중걸 박사(침례신학대학교 종교철학 교수)가 강사로 초청된다.

▲문의: (917)620-8964

## 연변 어린이 돕기 사랑의 한중미 자선음악회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회장 전상복)이 4월 19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제 18주년 북한 연변 어린이 돕기 사랑의 한중미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한미재단은 음악회 순서지 후원광고를 접수하고 있다. 광고비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01)801-9100

## 이승만박사탄신 제145주년 기념행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명옥 목사)가 주최하는 이승만박사 탄신 제 145주년 기념행사가 3월 26일(목) 오전 11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셋째마네 성전에서 열린다.

▲문의: (212)433-0724, (718)539-5700

# 새노회장 | 서노회 박종윤 목사 회장 | 동노회 박희근 목사

## KAPC 뉴욕일원 노회 제86회 정기노회...임원개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이 제 86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지난달 24일 남노회에 이어 3월 3일 서노회와 동노회가 정기노회를 갖고 임원개선을 했다.

### 뉴욕서노회

뉴욕서노회(담임 남일현 목사)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린 뉴욕서노회 1부 예배는 노회장 임동열 목사 인도로 기도 박종욱 목사, 설교 박종윤 목사, 성찬예식 집례 이종태 목사, 헌금기도 유기천 목사, 축도 남일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윤 목사(뉴저지 우리사랑교회)는 "나는 왜 기뻐하는가?"(빌4: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전제한다"며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는 세상이 모르는 진짜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목사는 "주 안에서"라는 구체적 의미로 ①사랑받기-외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기 ②소중한 것 얻기-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기 ③자족하기-사도바울같이 고통까지도 받아들이기 ④나눠주기-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쁨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종윤 목사 △부노회장 박정식 목사 △서기 박종욱 목사 △부서기 임일송 목사 △회록서기 성호영 목사 △부회록서기 남일현 목사 △회계 한병현 장로 △부회계 이상을 장로.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흥목사가 회원 가입했으며 △엘림장로교회(담임 임동열 목사) 임동현 장로고시 청원 △천성장로교회 후임목사(신두현) 청

빙 허가 등을 결의했다.

뉴욕서노회는 동시철회 산하 12교회, 중시철회 산하 7교회, 서시철회 산하 11교회 등 총 30교회가 소속돼 있다.

### 뉴욕동노회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뉴욕동노회는 공천부가 공천한 새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노회장 박희근 목사 △부노회장 이규섭 목사 △서기 문덕연 목사 △부서기 차석기 목사 △회록서기 이육주 목사 △부회록서기 이문범 목사 △회계 김인철 장로 △부회계 박성윤 장로.

뉴욕동노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뉴저지임마누엘교회(담임 장기수 목사) 장로 1인 증택 청원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 지승용, 이종훈 장로고시 청원 △제자삼년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교단가입 청원 및 장로 3인 증택 청원 △뉴욕십자가교회(담임 문신연 목사) 교단가입 청원 △회현 목사 회원가입 청원 등을 결의했다.

동노회에는 13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온누리장로교회 담임)가 소속돼 있어 이번 5월에 열리는 총회 준비노회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노회장 정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허민수 목사, 설교 정준성 목사("3가지 대가", 눅14:25-35), 성찬예식 인도 조문휘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 광고 신철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서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미스바금식성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참가자 대상으로만 이틀간

## 뉴욕목사회 미스바금식성회 2차 준비기도회

코로나19로 뉴욕목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미스바 회개금식성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회개 이준성 목사는 지난 2월 26일 열린 2차 준비기도회에서 "2020년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회개 금식성회를 계획했는데 세계적 재해(코로나19)로 인해 한국 팀들이 오지 못하고 뉴욕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준성 목사는 "한국 팀들과는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는 8월 개회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금식성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준비기도회는 총무 마바울 목사 인도로 김정길 목사의 경배와 찬양 후 기도 김정숙 목사, 설교 박수철 목사, 인사말 이준성 목사, 합심기도, 경과보고 김희복 목사, 축도 이재덕 목사, 만찬기도 박시훈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수철 목사(전 오산리기도회)는 "승리하는 금식기도"(에4:15-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은 전쟁이며 전쟁에서는 승리지만 남게 돼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금식기도로 나타난다"며 "금식기도는 첫째, 자기 혁명을 일으킨다. 영적인 치료와 정신

적인 자기 개혁,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시킨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정립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①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②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③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가? ④마음의 평강과 환경이 열린다. 셋째, 각오로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3월 미스바대회금식성회의 동원, 날세, 물질헌력을 위하여/박준열 목사 △성회 강사들과 성령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지도자 목사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오명의 목사 △뉴욕교계를 위하여/박정오 목사 제목으로 인도했다.

한편 이날 오정환 인도선교사 부부가 참석해 선교보고를 했으며, 목사회는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미스바대회개금식성회는 3월 9일(월) 오전 9시30분 등록을 시작으로 9일과 10일 오전 9시와 오후에 집회를 갖게 된다. 장소는 뉴욕새침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로 동일하다.

목사회는 이 집회를 위해 뉴욕의 모든 동포들에게 100불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9면에서 계속〉

프라미스교회 원로 김남수 목사는 "이승만 박사의 자유이념"이라는 주제로 "간증"이라고 말하고 "1954년 8월초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이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신 차려 지키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자는 이념과 사상을 가는 곳마다 연설했다"고 전했다.

3부 만찬기도는 김용의 목사가 했다.

주최 측은 이날 후원금 전액은 한국 구국운동을 위해 전액 송금된다고 밝혔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프라미스교회 7층에 사무실 겸 전시관을 마련했다. 자세한 문의는 (212)433-0724, (718)539-5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 한부모 가정사역

#### 〈8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고자한다면 보람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두려워 아니 하려나..."(시편 56:10,11).

kdministry@gmail.com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콜롬비아 건축봉헌, 신규결연 등 보고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 2월 정기예배가 지난 26일 오전 뉴욕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동 기구는 2020년 아동 후원자의 밤을 11월 29일 뉴욕에벤에셀선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후원자의 밤은 매 연말 아동원자들을 초청해 선교보고 형식으로 열리는 행사로 2019년에는 개최하지 못했다.

이날 사업보고에서 신규아동 8명(뉴욕성광교회 3명, 뉴욕성결교회 5명)을 포함 총 95명의 아동결연을 보고했다.

또, 기아대책이 후원하는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김혜정 선교사)에 다목적 교실 및 예배실 건축 봉헌식이 2월 26일 열린다는 감사 메시지와 함께 사진 등을 보내왔다고 보고했다. 기아대책은 이번 건축 지원금으로 보낸 1만 달러를 후

원했다. 예배는 전희수 목사(상임교무)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상임자문), 설교 라흥재 목사,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 축도 장석진 목사(이사장) 순서로 진행됐다.

라흥재 목사(뉴욕제자들과 회 담임)는 "영을 분별하라"(요일4: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통찰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맡겨진 사역을 이루어가자"고 강조했다.

2부 회무는 회장 권캐더린 목사의 개회기도 후 사업보고와 회무처리를 했으며 이상열 목사(상임교무)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좋은나무성품학교 미주법인 설립

## 기자회견서 세미나, 대안학교 등 사역계획 소개

좋은나무성품학교(대표 이영숙 박사)가 GOODTREE USA 교육법인을 설립하고 남가주 얼바인과 뉴저지 잉글우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주 사역을 시작했다.

3월 2일 오전 11시 단비TV(사장 정상교)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영숙 박사는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좋은나무성품학교에 대한 소개와 미주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2005년 시작한 좋은나무성품학교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표어로 태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성품의 가치관을 세워 '좋은성품 부모 세우기' '좋은성품 다음세대 세우기' '좋은성품 지도자 세우기' 프로젝트로 행복하고 건강한 한인가정과 학교,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박사는 공감인지능력(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과 분별력(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을 키우는 12성품론과 루아흐, 부모성품학교를 핵심 콘텐츠로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좋은나무성품학교는 2007년 뉴욕-뉴저지 성품세미나를 시작으로 워싱턴, 얼바인, 애크랜트, LA, 산호세 등에서 매년 세미나와 지도자과정을 진행해오다 2019년 미주법인을 설립하고 부모와 교사, 목회자를 위한 성품세미나와 온오프라인 성품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박사는 한국서 15년간 진행해오면서 인정받은 대로 미주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대안학교(유치원-초6)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첫째 아들이며 이사인 김희종 디렉터가 함께 자리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goodtreeusa.com)나 김희종 이사(201-693-1976)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좋은나무성품학교 기자회견 관계자들. 대표 이영숙 박사

# 자유민주주의 유산 물려주자

## 3.1절 101주년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

3.1절 101주년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가 2월 29일 오전 10시 Day Light LA Adult Health Care에서 열렸다.

세계기도모임서부지부,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Great Korea, 충효예실천본부 LA지회 공동주최로 열린 구국기도회는 김영구 목사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우한페렴, 정치, 경제, 국민의 단결)', 이병만 장로가 '미국을 위한 기도(우한페렴, 정경, 청교도 정신회복)', 윤태양 집사가 '북한통일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으며 단재장 일동이 만세삼창을 외쳤다.

김승희 회장(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은 "삼일운동



3.1절 101주년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신분과 계층을 떠나 하나 되어 민족자주를 외치고 우리선조들의 위대한 함성과 용기의 모습이었다. 선조들이 계셨던 것에 자부심 느끼고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힘과 맘과 피로 이

런 대한민국 근대사를 기억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 이 위기를 선조들이 하신 것처럼 애국심을 본받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박준호 기자)

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감 가져야 한다. 삼일정신 이어받아 세계 속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성남 회장(충효예실천본부 LA지회)은 "삼일절을 맞아 생명을 다해 대한민국이 바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 힘을 다해 한목소리 내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여호수아지 목사가 대표기도했으며 DAHC합창단이 특송을,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모르드개'(예3:5-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샘신 목사가 축도했다.



나성영락교회 창립47주년 기념예배에서 박은성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 나성영락교회 설립47주년 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설립 47주년 기념예배가 3월 1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박은성 목사는 "교회설립 47주년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내다보며 그 시간 함께할 하나님 소망하며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자 삼일운동 101주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민족해방을 위해 생명 걸고 나왔다. 삼일운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했다"며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우리민족과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 그 놀라운 역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백년을 바라보는 하나님교회 나성영락교회 가운데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한다.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가정과 교회 통해 사명 이루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성환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노인우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은성 목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탈화'(출3: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오드리, 이진경, 김은지 자매의 헌악3중주 특주가 있었으며 설립 47주년을 축하하는 케익 절단식이 있었다.

예배는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주회 세금보고강좌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경제적 가치 증명...강사 구자혁 교수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무료 세금보고강좌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유학생, 신학생, 목회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확장 강의실에서 2월 29일 오후 12시 30분 개최했다.

이번 무료 강의는 유학생들과 특히 신학생,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구자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개인 세무보고란-Income Tax Return △세무 보고를 위한 조건-CPT, OPT, On Campus △세금보고와 소셜번호(SSN) △고용과 소득에 대한 이해 △세무 보고가 주는 혜택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유용한 세무 정보-Credit Card 및 Credit Score에 대해 강의했다.

구자혁 교수는 "미국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연방,

주,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개인 세금보고는 세금보고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유학생의 경우 세금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CPT나 OPT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비영리단체의 경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기업체의 경우는 3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만약 당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세금보고 단란일이 6개월 연장이 되지만 연장된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생이 받는 장학금의 경우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일을 해서 받는 장학금은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600달러 이상 수익이 생기면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마가교회 최호진 포항공대 교수 저자특강 참석자에게 그의 저서 '영혼의 밤' 저서사인을 하고 있다

## '영혼의 밤' ...자유함을 누리라

### 마가교회 최호진 포항공대 교수 저자특강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는 최호진 포항공대 교수 '영혼의 밤' 저자특강을 2월 28일 오후 8시에 가졌다.

최호진 교수는 "지난 2001년 911이 터지기 전 사우디로 이직했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것이었다"며 "자유함을 누리려면 첫째, 경제적 자유이다. 예수님이 첫 공중설교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중 하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다. 둘째,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상처에 있던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나? 주의 영이 계신 곳은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경험과 성경말씀이 배치되면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집단이 되어버린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지식적으로 자유롭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세상 아

는 지식을 모두 습득하게 된다. 넷째, 물리적 자유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 집중적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문제다. 외모 출신배경 등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여섯째, 영적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삶속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다면 축복과 저주는 별 차이는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이 될 때 풍성하게 주셨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속박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알게 된다"라며 "우리는 이제 물러설 때가 없다. 과거로 갈수도 미래로 갈수도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늘로 날개를 달고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귀한 약속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 혼돈가운데 있다면 모든 신앙의 방향을 틀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지저스키즈 교사세미나에서 임은희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 도구사용하면 흥미유발...월별 계획 세워

### 지저스키즈 교사세미나, 강사 임은희 전도사

지저스키즈 교사 세미나가 2월 29일 오후 1시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부활절, 어머니주일, 성경공부 공작 CRAFT 등을 임은희 전도사가 강의했다.

임은희 전도사는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면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며 "월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의상이 필요한 경우 커스텀업체 의류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여러 형태로

아이들 사역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홈리스사역을 아이들 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은 노숙자들과 접촉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사역은 외로운 사역이다.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님 손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어린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회 게시판

## west

### 감사한인교회 부흥회 연기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이번 주(6-8일) 열기로 했던 이재철 목사 초청집회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무기한 연기했다.

▲문의: (714)521-0991

### 나성영락교회 봄맞이 말씀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봄맞이 말씀집회를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장경철 목사(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이며 일정은 6일(금) 오후 7시30분, 7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8일(주일) 1-4부 예배.

▲문의: (323)227-1400

### 2020세계기도일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회장 유화진 권사)가 주최하는 2020세계기도일예배가 7일(토) 오전10시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569-9133

###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좌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좌를 3월 14일(토)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목회를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 LA 확장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규모가 작은 비영리단체가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강사는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선교 담당).

▲문의: (714)525-0088

### 반주자, 음향엔지니어 모집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는 주일 2부 예배와 주중 예배를 담당할 반주자와 음향엔지니어를 모집한다. 음향엔지니어는 파트타임이며 사례비는 월 600달러다. 반주자의 사례비는 면담 후 결정된다. 이력서 제출 마감은 3월 31일까지.

▲문의: (626)444-0058

### 안디옥장로교회 설립44주년 감사예배

안디옥장로교회(담임 지윤성 목사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는 설립 44주년 감사예배를 3월 8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818)249-2871

### 성품대화법 세미나

새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는 성품대화법 세미나를 15일(주일) 오후 1시 본교회 비전채플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좋은나문성품학교 대표 이영숙 박사

▲문의: (972)446-0178

### 2020 새누리 봄 부흥회

휴스턴 새누리교회(담임 공인 목사,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2020 새누리 봄 부흥회를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위성교 목사(전 침례교총회장, 산호세 뉴라이프교회 담임).

▲문의: (713)722-0773



2020건강정보 세미나에서 하태준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 강사 하태준 박사, 예방 중요성 강조

### 미주복음방송 메디케어 세미나 개최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는 3월 2일 오전 10시 목회자들을 위한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목 목사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는 시니어보험 에니심 에이전트가 '은퇴를 앞둔 목회자 위한 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했으며 데니얼정 선생(LA)이 '메디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팀윤 서울메디컬그룹 대표가 서울메디컬그룹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메디컬그룹 내과전문의 하태준 박사가 건강강의를 했다.

하태준 박사는 "예전에는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요즘은 치료를 받는 것과 함께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방법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박사는 "당뇨 혈압 등을 통해 풍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치의와 상의해 정해진 항목을 잘 따르는 것이 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회복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진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며 "나이가 들면 몸에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적당한 운동과 흐르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 주일에 못 모였지만 온라인 예배는 뜨거웠다

전국 교회 코로나19 예방위해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대체

주일예배는 변함없이 드려졌다.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별 온라인예배로 진행됐다. 1일 한국교회 상당수가 사상 처음으로 주일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일대는 한산했다. 교회는 이날 오전 7시 1부 예배는 미리 촬영한 녹화본을 온라인을 통해 송출했다. 2-3부 예배는 이영훈 목사가 텅 빈 예배당에 나와 방송으로 설교를 전했다. 4부 예배는 조용기 원로목사가 같은 방식으로 설교했다. 5-7부 예배는 녹화 중계로 대체됐다. 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교회 성도인 구필자 권사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3부 예배를 앞두고 교회를 찾았다. 구 권사는 “예배당 출입이 안 되는 건 알지만 교회가 보고 싶어 나왔다. 마음이 쓸쓸하다”며 “거짓된 신전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형교회는 대부분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서울 용산구 만리현교회(이형로 목사)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입구에 나와 온라인예배인 줄 모르고 나온 어르신 성도들을 안내했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영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형교회들은 페이지를 미리 나눠줬다. 인천 징검다리교회(유인환 목사)는 28일 성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미리 예배순서와 설교문을 배포했다.

각 교회는 온라인예배 안내문을 공지하고 예배자로서의 거룩함과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라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기성 선한목사교회 목사도 “주일예배만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살았던 일들을 청산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각종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성도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등 교세가 확대됐다.

지난달 20일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한 경북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는 예상치 못했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김종원 목사는 “성도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사진을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오랜만에 3대가 가정예배를 드렸다’ ‘불신자였던 남편도 같이 예배하며 손을 모았다’ 등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회 율혜원 집사 가정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헌금함을 갖고 예배에 동참했다. 윤 집사는 “네 명의 아이 모두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아빠는 촬영 담당, 엄마는 예배생중계 준비, 첫째는 헌금위원, 둘째 셋째 넷째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됐다”고 전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는 재미있고 은혜로운 사신과 사연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이벤트까지 생겼다.

공예배 중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도 되고 있다. 경기 수원중앙침례교회 강은자 성도는 고명진 담임목사 등 사역자들에게 주일예배가 끝난 뒤 메시지를 보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비전교회(한재욱 목사)는 2일부터 나라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한 방송기도회를 개최한다. 30개 기도제목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수요일 제외) 매일 저녁 8시 기도의 불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통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관리시스템 원자료를 확보하고 34만1202명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에서 특전대원으로 활동한 A씨도 “신천지가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정통교회에 잠입한 추수꾼 명단”이라며 “교육생이야 추가로 모집하면 그만이지만 추수꾼은 핵심 신도로 수년간 공을 들여 포교 네트워크까지 구축해왔다. 만약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면 신천지 포교망은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씨는 “이 문제는 신천지라는 조직의 존폐, 미래가 달린 문제다. 신천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며 끝까지 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한국교회에 은밀하게 잠입한 신천지 신도를 막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 지도 기간 연장을 건의해 2년간 멘토링과 긴밀한 소통을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 신학과 단기선교팀 운용, 현장 선교사와의 갈등 문제 등으로 과거에도 신학 및 사역 지도를 받고 개선 노력을 했지만, 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2년 전 KWMA 활동이 정지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 합신 고신 등에서도 참여 금지와 교류단절을 결의했다. 최바울 인터넷 본부장장은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지도 방향에 순종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자신에 반하는 성도들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며 타자마당이란 의식을 진행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식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신씨는 범행 전 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씨의 사기, 특수감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온라인 예배 땀 교회 출석하는 복장

CSI브리지, 매뉴얼 제공, 개인 스마트폰 대신 큰 화면 한 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공예배를 온라인과 영상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목회자와 교인 모두 혼란이 빠졌다. 일각에선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설교자와 교인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면 효과적인 예배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설교만 녹화해 공유하거나 온라인 예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예배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27일 “온라인 예배는 설교자와 회중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며 “반면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장점이며 이 부분을 고려해 예배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온라인에 특화된 예배를 준비하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예배를 재구성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배 중 본문을 함께 읽

자고 하거나 예배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뒤 잠시 시간을 주라”면서 “아이들도 예배드린다는 걸 고려해 짧고 쉽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배를 녹화하거나 생중계할 때는 교역자 및 직원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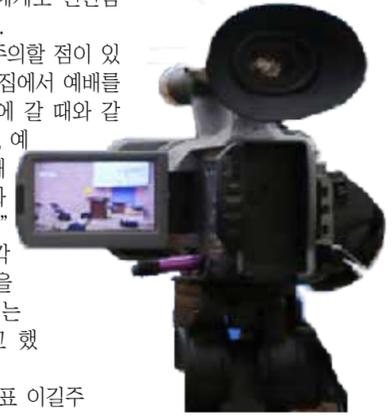
그는 “온라인 예배가 단절로 여겨지면 안 된다”면서 “대화하듯 설교하고 소수의 청중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인들에게도 편안함을 준다”고 했다.

예배자들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소장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갈 때와 같은 복장을 하고, 예배 중계를 볼 때는 한 개의 큰 화면을 이용하라”면서 “가족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드리는 것은 피하라”고 했다.

CSI브리지(대표 이길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에서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 매뉴얼’(표지)을 펴냈다. 예배 녹화와 중계를 위한 기술적 지원부터 예배 구성까지 온라인 예배를 위한 노하우를 담았다. 책은 이길주 목사의 블로그(mylord.kr/2461388)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한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예수 믿는 가정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흔치 않은 경험인 만큼 더욱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구속

“한기총·한교연 통합 논의는 계속”...21일 통합합의문 서명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통합 움직임은 계속되겠지만, 반정부 장외 집회를 주도해온 한기총의 위상과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대표회장 구속으로 한기총은 당간장 사무총장 박종선 목사가 이끌어 갈 예정이다. 박 목사는 “24일 밤늦게 소식을 접해 조직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공동회장단과 임원회, 전 대표회장들과도 긴밀하게 논의해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정관상 대표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현 대표회장이 공동회장 중 1인을 지명하거나 공동회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총-한교연 통합과 관련

해선 양 기관의 통합추진위원장인 이용규(한기총 측) 송태섭(한교연 측) 목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 측은 지난 21일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한 큰 틀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부수적인 사항은 통합 후 정리해나갈 것’을 골자로 대표회장이 통합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 통추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본부에서 상견례를 갖고 향후 통합 과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 목사는 “두 연합기관이 대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회원 정리, 직제 개편 등의 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 목사는 “그 동안 통합의 핵심이었던 ‘7.7 정관’을 바탕으로 세부규칙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전 대표회장의 구속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달 5일 한기총 본부에서 통추위 1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교연은 이날 오전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에서 제9-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건을 논의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전 대표회장의 구속이 양 기관 통합을 진행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하나 됨’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제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부)’ 집회를 주도해 온 전 대표회장의 구속으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삼일절 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 목사는 “투쟁동력이 이전 같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계획은 없다”며 “26일 중으로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를 만나 향후 일정과 진행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천지는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

탈퇴자들 “이만희 기자회견에서 거짓말 쏟아져”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의 기자회견과 핵심 관계자 발언을 청취한 신천지 탈퇴자들은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숙주’ 역할을 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에서 신종문을 펼치는 사이 신도 명단 누락, 팩트 왜곡, 집단 감염, 비밀 모임, 동선 비공개, 신분 은폐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신천지 전도교관으로 활동했던 김중일 안산 상록교회 전도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일이 신천지 신도에게 전화해 증상 유무를 묻게 한 것은 교주까지 나서서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말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실제로 신천지는 신도들을 감시하면서 일부러 전화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도사는 “신천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스스로 신고하라’는 명령만 내려도 며칠 만에 조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도가 전화를 안 받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신천지 간부의 말도 신천지의 조직 문화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도사는 “신천지에서 구역장 이상의 간부는 상급자에게 전화를 받을 때 3번 이상 전화벨이 울리면 심한 욕을 먹고 추궁을 당한다”면서 “일반 신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신속한 보고와 연락을 생명처럼 여기는 집단에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의도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탈퇴자들은 기자회견 때 ‘신천지에 집단 합숙소가 없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탈퇴자 A씨는 “신천지에는 종일 포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합숙하는 팀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면서 “가정 필박이라는 이름으로 가출한 청년 신도들이 모여 지내고 있는데, 이곳이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지가 된 게 뻔한데도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 고위관계자는 교육생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방역조사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신천지의 사기 포교로 교육생이 되려면 수백 가지의 사전 조사가 이미 끝난 뒤 포섭됐다는 뜻이기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교회 폐쇄로 행정이 마비돼 내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탈퇴자 B씨는 “신천지는 군대와 같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매일같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한마디만 해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신속한 조사 및 집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중국어 우한에 교회 건물이 없고 사람만 있었다고 거짓말하던데 보고서에 1개 센터에서 4개 모임을 운영하는 게 명시돼 있다”면서 “뻔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정부와 언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탈퇴자들은 정부가 신종문을 펼치며 사이버 종교집단에 저차세로 접근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기자회견장에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어 자신들이 기성교회인 것처럼 포장했다. 자신들의 공식명칭인 ‘신천지 예수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다.

## “교회 내 잠입한 추수꾼 3만1200명”

신천지, 중대본 제출명단과 실제 내부보고 큰 차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했다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추수꾼 3만1200명의 명단이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본은 27일 신천지가 국내 신도 21만2000명과 해외신도 3만3000명, 교육생 6만500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치면 31만명이다.

하지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신천지 전체 신도는 34만1202명이다. 신천지 총무가 지난달 12일 내부에서 현황 보고한 것을 녹취한 것인데, 신천지와 관련된 최신 자료라 할 수 있다.

전교연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의 국내 신도수는 23만9353명이고 입교 대기자는 7만명이다. 해외 신도는 3만1849명이다. 중대본 제출 인원과 신천지

총회 보고와 3만1202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신천지 전문가들은 차이가 나는 인원이 정통교회에 잠입한 추수꾼일 가능성이 크며, 압수수색을 통한 명단확보가 최선책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단상담소협회장은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통교회 안에서 부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새신자 팀장, 찬양단, 청년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추수꾼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라며 “신천지의 총회 보고와 중대본에 제출한 인원과 큰 차이가 나는데, 그들이 끝까지 보고하려 하는 추수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신천지가 넘겨주는 자료만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한다는 것은 국가 방역체계에 구멍을 내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반사회적 종교집단이 끝까지 정부를 우

## KWMA, 인터넷 활동 정지 해제

“2년간 자숙 끝났으나 자발적 사역지도 받기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한국세계선교협) 법인이사회(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원단체인 인터넷선교회(인터넷)에 대한 2년간의 사역 지도를 25일로 종료하고 회원 활동 정지를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KWMA는 2018년 2월, 자숙 차원에서 인터넷에 대해 활동 정지를 결정

했다. KWMA 인터넷 사역지도위원장 신동우 목사는 “최근 선교계 갈등의 요인이었던 인터넷이 KWMA의 사역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전 협의, 한인 선교사 보호, 협력과 연합, 정직성과 소통 부분에서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며 “공식 사역 지도 기간은 종료됐으나 인터넷 측이 자발적으로 사

## ‘신도 감금 폭행’ 신옥주 징역 7년 확정

신도 미혹 피지공화국으로 이주...1심 6년에서 1년 늘여

신도들을 미혹해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일명 ‘타자마당’을 통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혜로교회’ 신옥주(61·여)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수 대법관)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

수감금,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신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퍼트리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 선교의 창 (14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재난(災難)과 선교

하늘이 노(怒)하셨는가? 아니면 대자연이 인간에게 반항하는 것일까? 코로나19의 광풍(狂風)이 무섭다. 그간 중국 우환과 후베이성에서 주로 창궐하던 것이 이제는 세계 6대륙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초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웃나라 중국의 사태를 관망하며 “설마 우리에게까지 오기야 할까?” 라고 생각했다. 헌데 정작 한국, 이태리, 이란, 일본 등이 코앞에 불이 떨어졌다. 속담에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3월 3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가 5,186명이며 사망자는 29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5천명을 넘긴 것이다. 이로서 중국에 이어 한국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한 상태이다. 종교기관들도 문을 닫아가고 있다. 거리는 한산하고 많은 이들이 방콕상태에 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고 나라가 나라를 경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휘청거린 적이 있었던가? 참으로 어려운 싸움이다. 의료인들이 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위중한 때에 교회의 선교는 어

떠해야 하는가?

### 1. 인류와 재난의 상관관계

기나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과 재난이 늘 함께 병행해왔다. 인류에게 이런 환난이 없었던 태평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전쟁과 재난은 대부분 인간의 집단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현대를 살펴보자. 인류는 20세기 들어 ‘개발’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경쟁적으로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에서 보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후변화를 유발하며 자연으로부터 부메랑(Boomerang)적 도전을 받기도 한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무튼 전쟁과 재난에 대한 공통적 분모를 차지하는 요소는 긴장,

불안, 고통, 죽음, 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종교 간의 갈등 반목 파괴 등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있다(약1:15). 결국은 죄의 문제가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현상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2.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를 필요로 하는 시대

현대 개신교 선교는 크게 두 가지 선교신학의 기초 위에서 있다. 하나는 영혼구원과 다른 하나는 사회구원이다. 전자는 개인의 구원과 교회개혁 및 확장을 강조한다. 후자는 사회의 구원과 생태계의 구원을 강조한다. 전자는 성서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후자는 상황을 속에서 성서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현대선교 양극화의

말하면서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를 필요로 한다. 영혼구원과 교회개혁이라는 보수적인 선교 패러다임으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미시오 데이(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와 세상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3:16)고 했다. 결국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통전적 선교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

### 3. 로잔 대회에서 언급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세기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획을 긋는 국제대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로잔대회(Lausanne Congress)이다. 제1차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열렸다. 그 때에 대회의 결과

를 선포할 때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나라의 요청에 헌신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제3차 로잔대회는 1986개국에서 4,200명의 대표가 2010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그 때에도 케이프타운(The Capetown Commitment)서약이 채택되었다. 제1부 강령 중 10항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우리의 교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들이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전체성 가운데 우리를 변혁시켜야만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 4. 재난이 있는 곳에서의 선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교와 구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목적 달성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이 있는 곳에서의 선교는 단순한 봉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된다. 그 방법은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되 마가복음의 주제처럼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서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심령들 속에서 운행하실 것이다.

### 맺음 말

인류 역사는 고난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흘러왔다.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은 목숨이 위협 받는 일이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떤 종(種)의 동물이건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천적(天敵)에게 먹이감으로 희생당하거나 혹은 전염, 기근, 질병 등으로 중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사태로 우리 조국과 세계가 큰 시련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재난이 밀어닥칠 때에는 개별 인간이든 국가이든 당황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한다. 재난의 현상은 처참하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 대신 두려움과 고통과 한탄이 지배한다.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며 나라가 나라를 경계한다. 이렇게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위중한 때에는 무엇보다 선교적 구제가 시급하다. 주님께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결의로 이미 3차에 걸쳐 로잔선언문에서 언급이 되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둔감해서는 아니 된다. 세계교회는 심장의 박동소리,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통전적 선교로 이 난세에 극복해야 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한 몸체이기 때문이다.

jrson007@hanmail.net

## 코로나 19가 광풍처럼 6대륙 전역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난세(亂世)일수록 선교는 영혼들에게 초점을 둔 통전적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노선위에서 나아가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양극화가 아니라 통전적 선교를 추구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의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하나로 묶는 통전의 논리이다. 이러한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preaching), 제자들을 가르치시고(teaching), 병자들을 고치셨다.(healing)이 세 가지 사역은 매우 통전적이다. 이를 요약하면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통전성은 복음의 통일성을

물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은 세계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었다. 그러면 아쉬웠던 것은 재난지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피상적 언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1989년 7월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대회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마닐라선언문(The Manila Manifesto)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

를 선교 쪽에 두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구제의 목적이 영혼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틀린 말이나 아쉬웠던 것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상대방이 그리스도께도 가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동기 자체가 이중성을 띠기 때문이다. 선교적 구제란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예수사랑”이라는 동기 하나면 충분하다. 설사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봉사



### 세계한인언론협회 주관 제5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작

## 카일 아이들먼의 ‘포기하지마’ 를 읽고

장려상 김재운 목사(캐나다 Neighbourhood Church)



카일 아이들먼 작가는 청년부를 섬겼을 때 청년들이 ‘웬인가, 제자인가’ 책으로 북 쉐어링도 했던 적이 있어 친숙한 작가다. 이 책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경험들을 통해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당황하고 낙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헌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인디언 선교를 위한 순전한 동기로 왔었지만 선교지에서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시간들을 나와 아내는 보내야 했다. 우리 자비로 큰 돈을 들이고 선교사역도 잘 감당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다. 사역을 하다보면 녹초가 되어 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은 그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잘 다루어주고 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글을 쓰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읽혀지는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을 준다.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인데 사실 낙심하고 용기를 잃는 일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다. 나 역시 캐나다에 선교를 오기 전에도 한국의 중형교회의 후임 목사로 수십 여명 중에 선택되어 잘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오히려 현 담임목사님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조기에 담임목사로 세우려 하면서 그로 인해 소송들이 속에 휘말려 들면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그만 자포자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었다.

장로교의 본산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정통 장로교 학교에서 공부한 후 평생이 보장되는 영국 정통 장로교단 소속으로 동역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귀국했던 내게 한국교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성도분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셔서 담임목사와 후임목사로 거론되면서 그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심지어 거짓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무고를 당하는 일까지 겪으면서 나와 아내와 아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버티기 힘든 그 세월들 속에서도 나는 4권의 좋은 양서들을 집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시간이 나는 대로 수시로 요양

원에 계신 성도를 심방해 새벽 2시에 응급실에서 전화해도 달려올 목회자로 신뢰 받으며 병원심방 갔다가 유기농 빵을 성도가 드시고 싶어 하셔서 병원 근처에 빵 집이 없어 왕복 2시간을 걸어서 내 사비로 사 드리는 등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다. 그러나 차가운 목회현실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이 책은 내게 정말 필요한 시기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된다.

할 수 있을까하는 심정까지 든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 책의 내용들이 내게는 너무나도 와 닿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대가 분명하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도주의 사이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섬기려 몸부림치는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알팍한 술책으로 성공하고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서서 평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장거리 장로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내 평생에 실천하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해하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의 일이며,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 내가 극한 시련 가운데도 용과 같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책과 같은 많은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책들이 나의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을 형성시켜 주었고 내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은 변장한 복이며 어떠

한 고난도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당장은 고난이 힘들고 싫은 것이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아니라는 저자의 말이 깊이 공감하는 것이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항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끝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

뎀어주는 한인교회 목회자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천성 가는 나그네들인데 이 땅의 썩어질 것들로 추해지고 사나워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서로에게 배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생각났다. 기생 라합이나 삼손의 나 다했이나 솔로몬 등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결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 주셨고 바른 길로 결국 인도해 주셨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존경하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루터도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교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신앙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절감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든 마라톤을 끝내야 하는 선수와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바보세라’ 불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땅에서는 놀림을 당하고 뒤통뒤통 도망치지만 절벽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휘날려 지구를 몇 바퀴 도는 활공의 명수로 기억되는데 이 새가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람에 의지해 자신의 힘으로 날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16면으로 계속)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 가정의 정의

가정의 정의를 모르면 가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양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먼저 가정을 알고 이해함에 있습니다.

(1)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2)가정은 사랑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입니다.(브루너, E. Brunner) (3)가정은 결혼에 의해 출발하고, 부모와 그들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로서 구성됩니다.(레비스트라우스, Levistraus).

(4)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추억의 기념품과 유물이 있는 곳입니다. 자

으면 이미 지옥입니다(우찌무라 간조). (10)가정은 행복을 저축한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행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우찌무라 간조).

(11)가정은 안전한 휴식처요, 기본을 습득하는 학교이며, 하나님이 공경을 받는 교회이며, 정과 기쁨이 오가는 처소입니다(엘리 그래함). (12)가정은 사랑의 온실이고, 화목의 그루터기입니다. 아내 이기는 남편 없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진 지 오래고, 자식들의 고집이 거세진 지 오래입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가 되려면 '가화(家和)의 양상불', 즉 가

(18)가정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출발점과 완성되는 장(場)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도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며, 완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가정은 강력한 복음전파의 도구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 배우고, 기도해 줬더니, 심히 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가정이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20)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21)가정은 영적 충전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 가정, 축복의 통로, 영적 충전소 천국모형, 심의 안식처, 지상낙원, 신앙교육과 선교의 산 현장

녀들에게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가정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5)가정은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셰이퍼, E. Shaeffer, 'What is a Family?'에서). 가정은 가장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살아있는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자갈밭, 산길 등 어디든 갑니다. 가정에는 기쁨, 감사, 슬픔, 분노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6)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 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16)가정은 신앙교육과 선교의 산 현장입니다. 가정예배와 부모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신앙이 성장하고, 선교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본질입니다. (17)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입니다.

족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13)가정은 기적의 산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산실입니다. (14)가정은 사랑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희망의 씨(자녀)들이 자라나는 공동체로서의 힘이 있고, 샘물처럼 퍼 써도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15)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 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16)가정은 신앙교육과 선교의 산 현장입니다. 가정예배와 부모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신앙이 성장하고, 선교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본질입니다. (17)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입니다.

휴식과 안식, 위로와 격려를 통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힘을 재충전해 주는 충전소입니다. (22)가정은 꽃(화초)과 같습니다. 꽃은 방치해 두고, 무관심하면 시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잘 가꾸고, 물주고, 거름을 주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됩니다. 가정도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23)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할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24)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성전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이다', 즉 가정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성전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질서, 역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25)가정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 받아주는 공간입니다(로버트 프로스트).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선교 펴보기

2020 니카라과 전도 축제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노회장 허용구 목사)가 주최하고 니카라과복음화선교회(NPCM, 회장 김종훈 목사)가 주관한 2020 니카라과 전도축제는 99명의 연합단기팀과 16가정의 니카라과 선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난 2월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되었습니다.

뉴욕예일교회, 토론토 소금과빛 영광교회, 뉴욕기독교예수교교회, 바나바선교회, 캐나다 동신교회, 웨체스터장로교회 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니카라과 전도축제는 2월 20일 니카라과 소금과빛교회 헌당예배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니카라과장로교회 연합전도대회, 22일 레옹전도대회, 23일 장로교회 연합세례식으로 이어진 전도축제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를 방문하여 모듬복을 시작으로 찬양과 바디워십, 판도마임, 말씀, 부채춤 등 다채로운 순서들로 이어진 어린이 전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학교의 흙바닥에서 약 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1일 오전과 오후 각기 다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 오후에는 피약별 레옹 거리에서 즉석 공연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못 심령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8월 니카라과연합장로회 부분 건물 일주 감사예배를 드렸고 오는 4월 독노회 구성을 앞두고 처음으로 니카라과장로교회 연합전도대회를 마나구아 외곽에 위치한 어린이교회에서 개최하여 오전과 오후에는 개인전도, 중보기도, 침술, 안경, 미용사역을 하였고 오후 6시부터 23개 교회 연합으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도대회를 개최하여 37명의 심령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22일 레옹 전도대회를 위해 지난해 4월 첫 레옹주 10개 도시 목회자 대표모임을, 지난 11월에 목회자 전도세미나를 시작으로 10개 시를

방문하여 전도요원 훈련을 1월 2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회에 걸쳐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던 마사야주나 까라소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면적과 인구수를 보유한 레옹주는 주도인 레옹시가 1524년에는 니카라과 옛 수도였던 유서깊은 도시입니다. 레옹주 10개 도시는 물론 마나구아, 마사야, 치난데가주, 재작년 전도대회 개최지였던 상 라파엘 텔 수르에서까지 모두 280여대의 버스가 동원된 Campo Victoria(슬리의 광

에 위치한 니카라과한인교회에서 밤 11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자정을 넘겨서 숙소로 도착 하였지만 주일인 이튿날 밝은 모습으로 오전 7시 경건회는 물론 니카라과 호수에서 드러졌던 연합주일에 배는 물론 98명에게 배운 세례식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전도대회는 그 준비과정부터 영적전쟁입니다. 매 전도대회 때마다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장소 허가가 나오질 않거나 전기가 없거



장)에는 약13,500여명이 운집한 대 집회로 폭죽을 파는 성도가 도내이전한 폭죽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축제의 마당이었습니다.

연합 단기팀 숙소였던 그라나다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의 레옹에서는, 이제껏 진행했던 모든 전도대회는 모두 서서 진행하였었습니다. 그 래도 마사야 전도대회의 절반인 의자를 3,000개만 깔고 큰 통로들을 내었지만 그 통로들마저도 참가자들로 메워지는 진풍경 속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 초청의 시간에 앞으로 나올 수가 없이 단상으로 향하는 통로들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결산자들이 안 나오지?" 어렵게 앞으로 나온 결산자들을 짐계해보니 135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뒤 편에 서있었던 선교사 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잇더라는 겁니다.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찬양과 말씀에 집중했던 전도대회의 옥의 티였습니다.

나 전도대회장 전선을 이틀 전에 끊어가거나 전도대회 도중 비가 오는 등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늘 있어왔습니다.

올해 전도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적 전쟁을 치른 듯 합니다. 4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도 말입니다. 니카라과 소금과빛교회 부지 선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마땅한 대지를 계약하려면 등기가 미비 된 대지이거나 가격이 너무 높거나 문제가 있는 대지였습니다. 34군데 대지를 살펴볼 정도였으니까요. 불과 7주 만에 전기나 수도 연결이 미비 된 상황 가운데 담장/예배당/교육공간/놀이시설/조경 등을 마치고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도대회를 3주 앞둔 1월 말에 아내인 김연희 선교사가 구안와사로 얼굴 절반에 마비가 왔습니다. 두 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잇더라는 겁니다.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찬양과 말씀에 집중했던 전도대회의 옥의 티였습니다.

저녁식사 장소인 마나구아

(16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학사, 석, 박사 M.Div. D.Min. Ph.D.**

목사 지망생,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학위

34년의 전통, 초 교파적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신학대학(원)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Doctor of Ministry	상담, 교육, 선교, 목회신학, 설교와 멀티미디어
Ph.D. in Leadership	조직, 목회리더십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 대학, 신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본교 졸업자는 국제복음주의협회(IEA)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선교지, 목회사역지 적극 추천 및 파송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재단,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U - 글로벌리더십연구재단,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 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 영어로 보는 성경 (56)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1 Timothy 13-15

13) Even though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14)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along with the faith and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15)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of whom I am the worst.

<NIV 2011>

### WORD & IDIOM

\* blasphemer: 신성모독자 \* persecutor: 박해자 \* violent: 폭력적인, 난폭한 unbelief: 불신, 불신앙 \* ignorance: 무지 \* abundantly: 풍부하게 \* along with ~: ~와 함께, ~를 따라서 \* trustworthy: 신뢰할(믿을) 수 있는 \* deserve: 받을 만 하다, ~을 (당)해야 마땅하다 \* A was poured out on ~: ~위에 A가 부어졌다. 쏟아졌다.

### GRAMMAR

#### 13) Even though

비록 (~ 계속 이어지는 내용) 일지라도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이며      핍박하는 자이며      난폭한 자였다.

I was shown (i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나는 자비 안에서 보여 졌다      왜냐하면 내가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행동했기 때문이다.      => 비록

전에는 내가 신성 모독자요 핍박자이며 난폭한 자였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행하였기에 나는 자비를 입었다.

\* <even though>를 해석할 때는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과 함께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해석해야 함을 유의하다. <even though>를 받는 문장과 그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은 항상 반대가 된다.

#### 14)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우리 주의 은혜가      부어졌다      내 위에      풍족하게

along with the faith and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족하게 부어졌다.

\* <that are in Christ Jesus>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the faith and love>이다. <that>다음의 <be>동사가 복수임을 유의하라. <that>이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즉 <예수 안에 있는> 으로 해석한다.

#### 15)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여기에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말      (그것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안으로)에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of whom I am the worst.  
 (그리고) 그들 속에서(중)에      나는 가장 나쁜(나쁘다) => 여기에 모두 받아들일 만한 신뢰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 최고로 나쁜 자이다.

\*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에서 <that>의 선행사는 <a trustworthy saying>이다. 그리고 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후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 <of whom>에서 <whom>은 <sinners>을 받는 관계대명사로 <sinners>다음에 (-)를 넣고 계속해서 추가적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 <Here is ~>는 도취형으로 주어 <is>뒤에 있다. 이 경우 <be>동사는 (<~가 있다>)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 STUDY & THOUGH

■ 본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밝혀주고 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며 투옥까지 시켰던 자이다. 자신이 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무지가 모든 것의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전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무지하여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 We must observe evidence of conversion in our lives before we do work of the Lord.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여기 임한 하나님나라(막2:18-22)찬458장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 날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실 때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신랑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그 왕 안에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것이 신자입니다. 그 왕이 오신 신약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째, 왕의 부요에 참여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19). 주님은 금식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시는 왕이 이루

신 구속을 즐기는 때라는 뜻입니다. 둘째, 신랑이 빼앗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20).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그 왕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날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와 믿음으로 그의 공로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삶이 요청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22).

## 화 안식일의 실상(막2:23-28)찬157장

그 나라 왕이 유대 땅에 오신 후 일어난 마찰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창조를 마치자 처음주신 제도가 안식일의 실상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첫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27). 기계적으로 많은 규율을 정해 외식으로 빠지게 하는 율법주의가 된 것은 본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와의 교제를 통해 하늘안식을 누리야 합니다. 둘째, 안식일에 매이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율법주의가 돼버린 그 때에도 진정한 안식을 즐긴 것은 이미 복음 안에서 안식일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안식일을 즐기는 일입니다(27). 셋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십니다(28). 그 왕은 안식일의 실체가 자신이며 그리스도 중심한 삶 곧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수 안식일의 실상(막3:1-6)찬57장

노동에 이어 병고치는 문제를 통해 주님은 안식일의 실상을 어떻게 밝혀주셨습니까? 첫째, 율법주의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3-4). 온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악한 마음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이용해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행위는 완악해 참 안식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선행을 행함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예배를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다 적극적인 일 곧, 선행, 구제, 성경공부, 복음전도를 이 행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성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 목 그 왕의 권세(막3:7-12)찬429장

하나님나라의 왕이신 인자는 어떻게 그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까? 첫째,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칠 분은 인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둘째, 귀신들이 굴복했습니다. 육체의 문제보다 깊숙이 있는 영적 질고의 원인인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심으로 모든 영권이 오직 인자에게 속한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물려왔습니다.

그의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자원해 그에게 물려오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는 것은 그의 권능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인자의 왕권은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복음화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막16:15) 그 자신이 전능의 힘으로 친히 일하십니다(막16:20). 전능자의 그늘아래서 즐거워하십시오.

## 금 사도를 세우신 목적(막3:13-18)찬332장

그 왕은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심에도 제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첫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같이 사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종말에 오신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상황이 부족해도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마 28:19). 셋째,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첫 아담을 무너지게 한 귀신의 머리를 상하게 해 구속을 완성하려고 사도 곧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셨습니다. 사도가 기록한 인자에 관한 증거인 성경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 왕국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 토 더 강한 자로 오신 주님(막3:20-30)찬352장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첫째, 사탄을 멸하려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33). 창세기 3:15절의 원시복음의 약속을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모두 멸하여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둘째, 자신이 전능자임을 주장하셨습니다(27). 그 왕

은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심판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앞에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그만이 우리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셋째,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27-30). 이런 능력은 삼위 하나님인 성령의 손길로 이루어심을 보였습니다. 그 전능자의 손아래 능하신 자로 살아갑시다.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하나님께 별별 떨다간 목사”로 기억되고파

##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 미주성서화운동 공동대표



### 세기언 초대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이하 세기언)는 남가주 지역 한인 중진 목회자들을 초청해 사역현장에서 느끼는 목회와 교계에 바라는 점을 나누며 대화의 장을 갖고 자 '세기언 초대석'을 마련했다. 본 초대석은 세기언 공동으로 인터뷰를 개최하고 이를 소속 언론사마다 '세기언 초대석'이란 이름으로 게재하기로 했으며 첫 번째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 미주성서화운동 공동대표)를 초대했다.[편집자 주]

버스에 비치돼 있었습니다. 그 CD에 담긴 저의 설교가 저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었지요.”

목회사역과 함께 교계활동도 적극 참여

2007년 3월부터 1년간 동사목사로 이영훈 목사와 동역한 후 담임목사로 취임한 진유철 목사는 금년 부임 13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는 순복음(Full Gospel) 신앙의 기반이 되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5

2019년부터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헌신하고 있다.

교계연합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나성순복음교회가 이영훈 전임 목사 때부터 연합에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 진유철 목사는 “연합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 말하며 “이영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을 지낸 것, 그리고 제가 교협회장과 성서화 대표를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합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연합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라며 연합에 대해 “모두가 다함께 해야 연합이 되는 것

## 1986년 파라과이선교사로 파송, 상파울로 거쳐 나성에 ‘사역의 성패는 신뢰관계에서 시작’ 모토삼고 연합활동

중 복음과 영적, 환경적, 육체적 축복의 3중 축복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진리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온 세대가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순복음 해외 장자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휴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연합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모여야 연합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적 이상향이다. 예수의 생명이 뚜렷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연합의 본질”이라 강조했다.

사역의 성패 신뢰관계서 시작 돼

그는 기독 언론사들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며 ‘사역의 성패는 신뢰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저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에게 대해 어떠한 봉사에 대해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봉사가 신앙생활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회자와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시발점이 돼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고 봉사역시 신앙생활의 윤택유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역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교계와의 신뢰관계가 쌓여지고 돈독해질 때 사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해외이민교회에 대해 진 목사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는 “해외이민교회의 최대자원은 믿음자원이자 인적자원”이라며 그 근거는 한국교회의 후임자들 중 미주 이민교회 출신들이 많다. 청년 차세대 성도들 자원이 훌륭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으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그는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에

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하나님께 별별 떨다간 목사로 기억되고 싶어

“나는 목회가 제일 좋다. 문제가 있으면 더 흥분된다”고 말하는 진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내가 더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라고.

일주일의 거의 교회서 지내다시피 한다는 진 목사. 그는 많은 시간 책을 읽는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한다. 책을 읽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행복이고 나성순복음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들려준다.

“어떤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하나님께 별별 떨다간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죠. ‘내가 지나가도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목회하고 미국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구할 때까지 제 설교테이프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상파울로 교회에 연락하지 않았습니. 제 소원은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제발 제 자취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고픈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박준호 기자)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30분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강남식당에서 언론협회 소속 신문사 대표와 기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초대석에 자리한 진유철 목사는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목사 진유철’이 아닌 오직 예수그리스도만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만 남았으면 한다”고 입을 열었다.

파라과이 선교사에서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진유철 목사는 1986년 파라과이선교사로 파송됐다.

그는 파라과이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이야 한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지만 80년대 당시에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을 때”라 언급하며 선교사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비쳤다.

선교사로 나서게 된 동기를 묻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

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을 끌면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로 가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한 달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파라과이로 떠났습니다”라고 들려준다.

그렇게 시작한 파라과이에서의 선교사역은 2002년 브라질 상파울로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당시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이었던 이영훈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옮김에 따라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됐으며 선교사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로 사역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나성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후임으로 이미 4명의 목회자가 나성을 찾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성순복음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부흥회 인도를 한 적도 없었고 친분이 있는 분도 없었니까요. 그런데 제가 와 보니 설교 CD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교회

### 선교편지

(14면에서 계속)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대회 장소인 Campo Victoria에 배선관이 모두 타버려서 전기가 없었습니다. 레옌 시장 말로는 예산부족으로 방치된 지 1년이 넘는 담니다. 결국 저희가 배선관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여 전기공을 동원하여 이를 전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단기팀 입국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치과사역을 위해 1개월 전부터 서류를 갖추어서 보사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올해 저희 법인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올해 한인선교사 법

인들 감사가 아주 유래 없이 심합니다. 어떤 법인은 지난 20여년의 법인서류 전체를 제출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렵게 감사를 통과하고 신청 후 이튿날이면 발급해주던 법인확인서를 결국 단기팀이 돌아간 10일 후에 서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과사역을 준비하셨던 물품들을 고스란히 공항 세관에 압류당한 채 사역하지 못하고 출국 당일 보관료를 물고 물품을 찾아서 돌아가신 치과사역팀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0명의 연합 단기팀을 확정된 후에도 단기팀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편찮으셨습니다. 과연 전도대회

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1명이 참가를 포기하여 87세부터 13세까지 3세대 99명의 단기팀이 오셔서 선교사들과 한 마음으로 전도대회를 주님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자리로 빛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Nicaragua Para Cristo” “니카라과를 그리스도에게로” 이 함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후 2020년 2월 25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mica21@gmail.com

### 독후감 공모 수상

(13면에서 계속)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내 자신의 의지와 확신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처럼,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처럼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

했고 이 책은 내게 정말 필요한 시기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있는 짐을 모두 예수님께 내어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된다.

내가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책의 제목대로 어떠한 일들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을 읽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내용대로 내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갈급한 번역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전의 우 번역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1:8-9).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 Florist Nabi

나비꽃집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